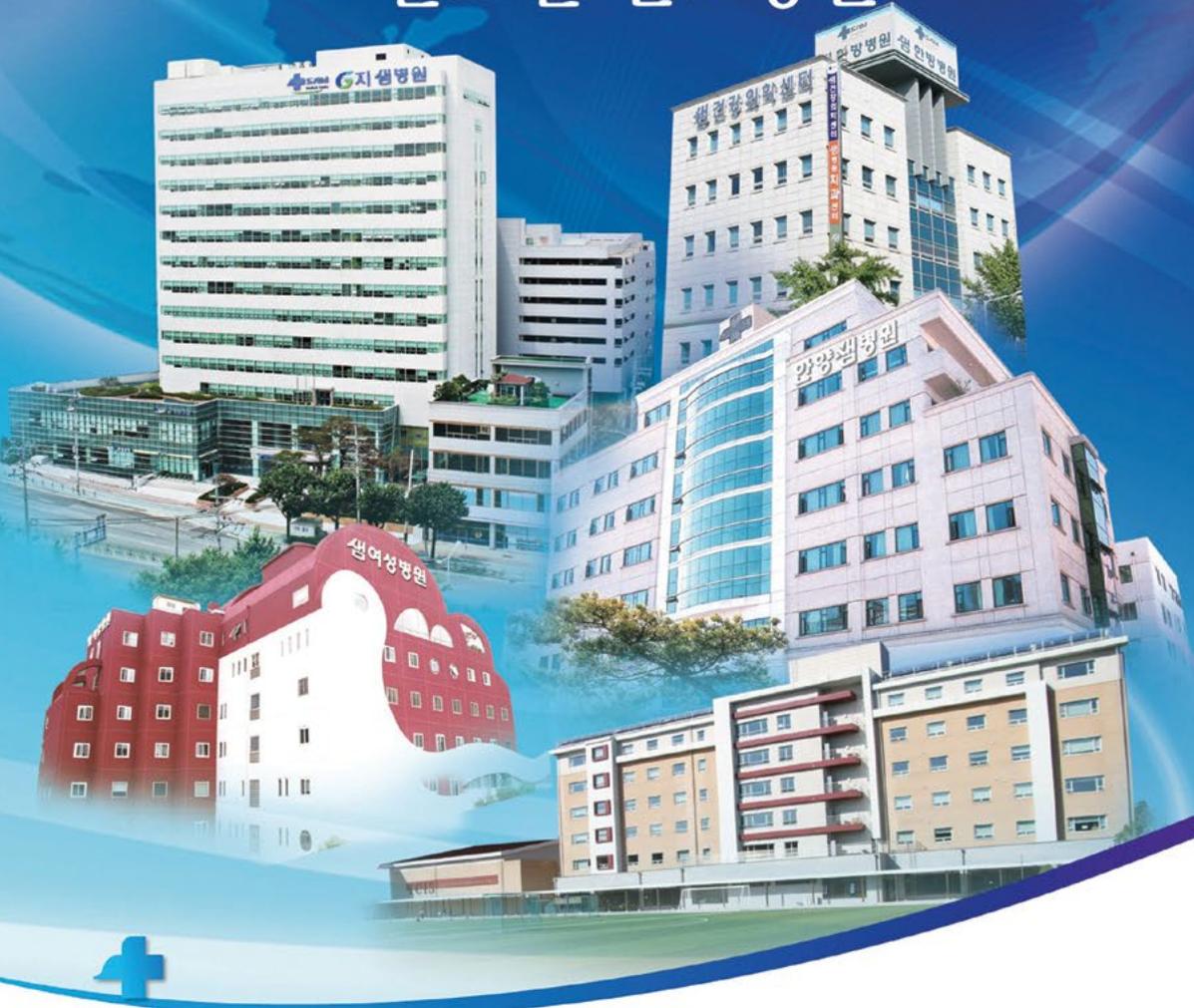


탁월한 통합의료와 전인치유로 생명사랑을 실현하는 글로벌 선교병원



48년 전통,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안양샘병원
경기도 군포시 400병상 암특화 종합병원 G샘병원
유니세프 지정, 아기와 여성에게 친근한 샘여성병원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한양방협진 샘한방네트워크
세포에서 영혼에 이르기까지 효산의과학생명연구원
통합 전인치유의 산실 전인치유교육훈련원
국제공인 세계화 교육을 실현하는 TCIS 대전외국인학교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병원부문 우수 등급 의료기관



삶의 문턱에서 만나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로 보기

2016년 1월 28일~30일 (목, 금, 토 3일간)

100주년기념교회 별관 (합정역 7번출구, 도보 10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71-5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02) 754-8004 / 한국 라브리 선교회 : (033) 673-0037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www.labri.or.kr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한국 라브리 선교회가 함께 합니다.

삶의 문턱에서 만나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상 바로 보기

일시 2016년 1월 28일~30일 (목, 금, 토 3일간)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별관 (합정역 7번출구, 도보 10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71-5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전체일정 참가 : 70,000원 (중식 2회 제공, 숙박 제외)
 저녁일정만 참가 : 20,000원

문의 라브리 : (033) 673-0037
 세계관동역회 : (02) 754-8004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등록 안내

신청(온라인) scw2016.labri.kr

입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입금자명 앞에 "세"를 붙여주세요.
 (예 : 세)홍길동

등록완료

입금 확인 후 등록완료(문자확인)

프로그램 일정

	1월 28일 (목)	1월 29일 (금)	1월 30일 (토)
A 10:00~11:10		교회누나 TALK(올타리 섬김)_김고운 렘브란트 감상_성혜진 루이스를 통한 교육_정인영	세계관 공부의 최고학교_박경옥 권력과 권위_성기진 예코팜프_박진숙
B 11:20~12:30		밤 한그릇의 세계관_김진성 성경적 세계관을 담은 영화들_유지은 정보와 인권_성기진	교회와 청년_신재용 세계관, 제자리에 놓기_신효영 인권, 인간다움을 누리기 위한 권리_김종철
중식	등록		
A 14:30~15:50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보기* - 성인경 -	사도세자와 영조, 그리고 정조_임자현 간사님 기도가 막혔어요_이충성 고자질을 조심하라_성인경	저지대비전론* - 성인경 -
B 16:10~17:30	리더십* - 황성주 -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경영_김미영 십대의 문화와 세계관, 깊이 이해하기_안성희 십자가의 복음 (2)_양영전	*은 전체특강/ 그 외는 선택특강
석식			
A 19:30~20:40	십자가의 복음 (1)* - 양영전 -	과학을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으로 볼 것인가* - 우종학 -	
B 20:50~21:40	경제, 기독교세계관으로 보기* - 김승욱 -	인성이냐 스펙이냐_설동렬 십자가의 복음 (3)_양영전 이방인과 친구되기_김종철	

주요 특강 안내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보기_성인경 (한국라브리 선교회 대표 간사)
 리더십_황성주 (이룸그룹 회장, 라브리 이사)
 십자가의 복음_양영전 (마산 재건교회 담임목사, 라브리 이사)
 경제, 기독교세계관으로 보기_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세계관동역회 이사)
 십대의 문화와 세계관, 깊이 이해하기_안성희 (남포교회 부목사,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실장)
 과학을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으로 볼 것인가_우종학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월드뷰 편집위원)
 이방인과 친구되기_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라브리 이사)

* 진행 중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사오니 홈페이지(www.worldview.or.kr)를 참고해주시시오.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한 형제자매된 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5년에는 “한국교회에 들어온 비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를 조명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있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종교개혁 500년, 한국 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6년 한 해 동안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이자 이사이다. 저서로는 「제도의 힘」, 「자본주의 사회를 보는 두 시각」, 「시장인가 정부인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붙힌 95개 조의 논제는 종교개혁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리포(Refo; Reformation)500’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개혁신학회, 한국칼빈학회, 한국루터학회 등 주요 7개 신학회와 각 교단의 신학교들이 참여해서 2011년에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를 조직했습니다. 2017년까지 사업 주제를 ‘종교개혁과 한국 교회의 갱신’으로 정하고, 연구프로젝트,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전자도서관 설립 및 자료 네트워킹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에서는 캐치프레이즈를 ‘나부터 개혁하자’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 개혁이라는 명제로 개혁의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성과 통찰을 기반으로 한국교회의 변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나부터 개혁하자”고 하면 개혁하지 말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누구도 감히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없지만, 그래도 개혁할 것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나부터 개혁하자”는 구호를 제시하는 것은 쉽게 공감아 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당한 얀 후스(Jan Hus)나 영국 크랜머 대주교, 휴 레티머, 니콜라스 리들리 주교 등의 순교를 생각하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개혁하는 정도



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옳은 것을 말하는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제2의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심정으로 근본부터 다시 바꿀 것은 바꾸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지역교회들이 벌써 종교개혁 현장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 준비가 한창인 독일도 8개의 관광코스를 마련하고, 독일관광청에서는 한국 기독교인들을 고려한 여행 상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왕 여행가는 것이니 종교개혁의 발상지를 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학회도 주제를 종교개혁과 관련된 것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정말 교회가 환골탈퇴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진정으로 다시 개혁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에서 멀어진 것이 무엇인지 뿌리부터 되짚어보는 일을 한 해 동안 진행했으면 합니다. 먼저 1, 2월호에서는 전체 개혁 과제를 총론적으로 살펴보고, 이후에 한 가지씩 개혁과제를 점검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간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박상은 안양생병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우중학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루스대 신학박사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화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학 신학박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前)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MBC 사장, CGN TV 대표	
실무진	황정희 JnD 디자인 실장, 월간 『과학과 기술』, 주간 『강원랜드』, 『다시, 꿈』, 『위즈플러스』, 격월간 『국악누리』 등 다수 디자인
	신효영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총신대 석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행위원회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M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감사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실행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I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Contents

WORLDVIEW · JANUARY · 2016



COVER STORY 08 커버스토리 교회가 모인 교회_조정민

- SPECIAL**
- 20 기획칼럼 종교개혁을 기념할 자격_손봉호
 - 22 기획칼럼 종교개혁과 기독교세계관운동_신국원
 - 24 기획칼럼 종교 개혁의 정신과 한국 교회의 현황_송인규
 - 26 기획칼럼 종교개혁과 문자, 그리고 시대적 선도_조성돈
 - 28 기획칼럼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_이승구
 - 31 편집인추천 함께, 더 깊고도 넓게

- COLUMN**
- 34 메디컬칼럼 Cure & Care History Taking_최현일
 - 37 시사문화칼럼 Cure & Care 기독교세계관을 만나다_김영균
 - 40 묻고 답하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_김현수

- CULTURE**
- 46 땀복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
 - 60 유머 원수사랑_손봉호

BOOK REVIEW 48 서평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나다_추태화

- NEWS**
- 04 발행인 신년사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며_김승욱
 - 52 세계관동역회 실행위원장 신년사 다시 뻔뻔해지는 새해_김태황
 - 56 사무국 뉴스
 - 57 1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WORLDVIEW

2016년 1월호 WORLDVIEW 통권 187호



표지인물 조정민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보조 이종원
사 진 신효영
일러스트 김규상, 신선영
제 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화 02-754-8004
팩 스 0303-0272-496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 (한강르네상스빌 A동)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페이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
블 로그 http://cworldview.blog.me
이메일 m.worldview.or.kr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교회가 모인 교회

베이직커뮤니티교회의 목사이자 세계관동역회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소장인

조정민 동역자님을 본지 발행인인 김승욱 교수가 만났습니다.

김승욱
(이하 김)

베이직커뮤니티교회가 첫 개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스톤에서 한인들과 함께 보스톤온누리교회를 이끄셨던 걸로 아는데요. 규모가 작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조정민
(이하 조)

처음 13명의 교인들과 함께 시작했다가 4년 만에 600여 명의 교회가 되었죠. 당시 온누리 교회라는 이름을 보고 온 사람도 있었고, 새로운 기대를 갖고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신학 공부하며 시작된 교회 일로 입이 두 번 돌아갔고 심장 수술을 두 번 해야 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도들의 수적인 증가가 부흥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대부분 이민교회는 수평이동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받아요. 영적 성장이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교회가 교회일로 내몰다 보니 서로 부딪히며 분노가 쌓이고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강박해지고 자꾸만 옮기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성도들을 확대할 수 있겠다고요. 이민교회는 각자의 삶의 배경과 신앙 정도가 각양각색인데 하나의 틀 속에 넣고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각 성도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마음이 조금했고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자가 무엇인지, 사역패러다임은 어때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기들이 현재 베이직커뮤니티교회에서 목회관점과 철학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개혁하는 목회자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한다고 착각했었거든요. 교회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개혁한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내가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된 성도들이 모여 함께 교회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베이직교회의 첫 단추를 그렇게 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사람들을 조직화해야 하고,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는 조직과 제도의 틀을 당연히 먼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아니라란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역의 틀 속에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비전을 발견하고 스스로 삶을 변화되는지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소극적인 역할이지요.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목회자가 교회 비전 선포하고 성도들을 조직해서 목회자의 비전과 방향에 맞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 성도가 삶을 스스로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목회자가 인내심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목회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소통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배워야죠.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읽고 먹고 소화하고 깨달아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역도 일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붙잡고 씩씩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교회 초창기에는 기본 단위의 공동체인 목장/구역도 나누지 않았어요. 공동체에 대한 욕구와 갈망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세상적인 방법과 언어로 소통하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그야말로 세상보다 못한 관계를 만들거든요. 오직 한 가지 공동체만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는 통독공동체만 했습니다. 심지어 기도 제목도 나누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지도 못했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어찌 알아 함당한 기도를 할까 싶어서 성경을 읽고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급한 기도는 교역자들과만 나누도록 했습니다. 우리 내외가 첫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한 것이 3년 전, 그 이후 1년 반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등록된 교인이 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구역이 없는 건가요?

지금도 구역과 같은 조직은 없습니다. 구역 모임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통독 공동체를 꾸렸고, 이 공동체가 구역처럼 모이고 있습니다. 한 모임이 열명 안팎으로 모이고 48개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출석하는 정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라고 종용합니다. 말씀만 붙들고 가기로 하고 지금까지 2년 반 남짓 지나



는 동안 상상하지도 못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보다는 자신이 말씀대로 부단히 애쓰는 각 개인의 고충이 저마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가정과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는 움직임들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 읽을 때 성경의 몇몇 단어가 눈에 보이다가 두 번째에는 문장이, 다음은 문맥이 눈에 들어온다는 간증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늘어나는 것

이 열매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소리 내어 읽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새신자와 함께 모여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김 ■ 성경통독이 그저 조용히 앉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서 함께 읽는 거군요?

조 ■ 매일 각자가 성경을 읽고 모이는 날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그날의 분량을 함께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나뉘지는 거죠.



김 ■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곳에서 이와 관련한 학술대회도 개최되었고, 국내외에서 이를 기념하여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무엇이,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조 ■ 마틴 루터가가 주장한 종교개혁 5대 솔라(sola)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가장 '베이직'이겠지요. 한 마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곡해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종교라는 틀 가운데 어떻게 가렸는지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종교가 아니라 사랑이고 생명이자 빛이고 말씀이심을 친히 살아내셨지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셔서 유대교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은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솔한 제도와 미디어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미디어(media)가 되시고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로마 가톨릭이 오랫동안 썩어놓은 굴레로부터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의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미완의 종교개혁이라 부르는 까닭은 로마 가톨릭 시스템 속에 있는 교리 등의 여러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간소화 시켜놓은 데 국한했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Protestant) 교회라고 하면 예수 중심의 공동체(ecclesia)로 회귀해야 마땅하지만 사실 그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합니다. 오히려 Protestant(개신교) 교회는 서로 Protest(프로테스트, 시위)하다가 이렇게 많은 교단과 교파로 분열되는 결과를 낳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종교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인도가 아닌, 유대교와 비슷하면서도 종교성만 더 강화된 또 다른 종교성의 족쇄에 묶여져 있다고 봅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월로우크릭교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20년 사역을 점검하면서 교회가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종교적이 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의도했던 영성 대신 종교성만 자라고 말았다는 얘가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메가 처치의 흥내를 내며 따라가려고 하니 더 이상한 형태의 교회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교회의 본질인 '예수 공동체(에클레시아, Ecclesia)'의 개념과도 다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로부터 해방시킨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삶 중심의 예배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셨거든요. 삶 중심으로 바뀌는 예배는 장소가 어디가 되었건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한 하나님 나라(Basileia)에 있었지요. 하나님나라는 '종교'라는 틀이나 시스템과는 별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거나 훈련시키는 데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교육하고 훈련한다고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도 실패한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속에서 예수님께로 돌아가 날마다 교회로 빛어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교회가 되어 흠여졌기에 그곳에 교회가 탄생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주후 313년 경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기독교의 외연이 급속히 확장되었지만, 그 때를 기점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안에 가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교로 공인되는 과정



속에 너무 많은 이단적 요소들이 물밀 듯 들러와 성전에 또다시 얽매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장애물을 놓으며 부속된 전유물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루터가 이에 저항을 시작함으로 비록 성도들이 성당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도로 벗어나는데 여전히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미완의 개혁이 되고 만 것이 아닐까 싶어요.

김 ■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등 종교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불러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늘 날에도 역시 종교라는 틀 안에 갇힌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열심의 공로를 찾기도 하고요.

조 ■ 그런 것들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인간의 열심은 종교적 마일리지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또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되었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마일리지가 되고 그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교회 안에 또 다른 지배계층이 생겨나고 그 상급으로 일종의 신분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 쉰 넘어서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아 이제 목회 8년차입니다. 아마도 기존의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사람 목사 취급도 안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웃으면서 그런 말 합니다. 술 취한 사람 집에까지 데려다 준 적 있는지, 토한 사람 입을 한번 닦아줘 봤는지, 돈 없는 사람에게 밥값을 한번 대신 내줘봤는지 말이죠. 살면서 어떤 일로 손해 보았으며 인생에 정말 제대로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넘어져 죽은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입사하고 6년 동안 새벽 네다섯 시에 출근했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살겠

다고 애쓰는 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희생이다, 헌신이다 할 수 없지요.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걸 목회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이십년 이상을 목수로 일했어요. 당시에는 목수가 가게 차려놓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디다. 남땀 장사처럼 동네를 두루 다니며 부서지고 고장난 것 있으면 고쳐주고 뜨내기처럼 살았습니다.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나이 서른이 되고 나서야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나이 서른은 지금의 오십 정도 아닌가 싶어요. 사람의 삶을 모르고는 절대로 사람을 섬기는 목회가 어려워요. 삶이 없는 메시지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변화한 경험이 없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면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간단합니다. 만약 성도들이 헌금을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이웃들,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정직한 NGO나 NPO를 돕기 위해 쓰면 한순간에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 선한 사마리아인이려면 이웃을 돕는 것이지 교회에만 머물 이유가 없어요.

김 종교적 마일리지, 색다르면서도 경계하게 됩니다. 베이직커뮤니티교회에는 또 하나의 독특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교회로 남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의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조 교회가 조직화되지 않으려면 그런 계급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담임목사라는 말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호칭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바로서는 것은 아닙니다만 담임 목사 밑에 부목사, 전도사를 두고 수족처럼 부리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담임(擔任)이라는 말 자체는 말을 담 자에 맡길 임자인데,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미션을 맡기셨거든요. 비서실을 둘 정도라면 목회를 줄여야지, 세상에서 CEO가 하는 것이나 정치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 이것을 목회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제도와 권위부터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의할 때, 간사든 누구건 다 함께 합니다. 수련회 같은 모임을 갈 때면 간사건 목사건 다 같이 지냅니다. 정말 형제자매라면 세상의 조직이나 관계와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교회의 내일을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수적 성장만을 추구하고 목회자들이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대형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무작정 추구하였다면, 2020년을 앞둔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과거의 교회패러다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작은 공동체가 대안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시기에 작든 크든 교회공동체가 핵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쫓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목회가 비기독교적인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기준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니까요.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주님께로 보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회자들이 사역한다고 본질과 거리가 먼 일들과 씨름하다가 주님과 씨름할 시간을 놓치면 허사지요. 또 어떤 목회자는 교회도 규모가 있어야 일한다는 말을 하는데 왜 교회가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성도가 세상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도록 돕는 일이 전부입니다. 성도는 어디서 일합니까? 직장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일합니다. 지금까지 성도가 자기 생각대로 하던 일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하길 원하셨다면 단 열두 명의 제자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천 명, 이천 명씩 모아서 혁명을 하든, 가버나움에 국제사역본부 선교센터를 뒀겠죠.

복음이란 삶의 태도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초월성은 종교이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meta-religion입니다. 이 세상을 종교적 갈등으로 몰아넣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종교의 배타성을 넘는 생명의 원천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결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

아요. 사람이 사람을 거둬나갈 수 없는 일이지요. 목회자의 역할은 오직 성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하고 판 길로 갈 때 길을 돌이키도록 돕는 일입니다. 사실 나머지는 주님의 몫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머리에 떠오른 건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벌거벗은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저 좋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교회 간다고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게 먼저지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예수님의 교회가 됩니까?

김 원리적으로는 목사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지만 또 모이는 지역교회로서의 조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제도적으로 어떤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조 교회가 제도에 묶여 있는 까닭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가 교육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제해야 하지만 그것 자체가 또한 목적이 아니고, 선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를 사랑한다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속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평생 그 자식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지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란 듯해도 독립시키고 떠나보내야지요. 교회는 성도를 떠나보내기 위한 공동체여야지 키치고 흠여지지 않는 거대 조직이 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 독생자를 주셨듯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썩어져서 생명이 될 것인지, 생명 없는 세상에 어떻게 뿌려질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세상 속에 있어

야 해요. 교회 속에만 있으면 종교성은 자라지만 생명을 근거로 삼는 영성은 줄어들어. 축구공 많이 차는데 골을 못 넣는, 볼 점유율은 높는데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갈 현실 감각이나 영적 도전이 줄어들어. 이것이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실력으로 승부가 나는 곳입니다. 실력 없는 영성이란 의미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력을 길러야 그 실력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실력 없는 기독교인끼리 모이면 학예회 밖에 되질 않아요. 실력을 통해 세상을 점령해야 합니다. 연주를 하든, 패션을 하든, 영화를 만들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것들을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영성이라 한들 세상과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중심의 교회 패러다임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모읍니다.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교인들끼리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세상에 버려두면 성도를 놓친다 말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성도를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목회자 자신에게 묶어놓은 결과 소통 능력이 없는 자폐아와 같은 교인을 양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아주 오랜 시간 언론에 몸담으셨습니다. 25년간 언론인으로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접한 많은 경험이 목회의 자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상 경험 없이 신학을 공부하고 젊은 나이에 목회의 길을 걷어가는 목회자가 대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려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말이죠.



조 저는 바람직한 것 중 하나가 목회자들의 이중직이라 생각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 사회가 고령화되어가며 일반 성도들도 평생직장이 아닌 직업을 두어 개씩 경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도 몇 개의 직업을 바꿔가면서 삶의 지경을 확장하는데 목회자들이 그들의 삶 속으로 뛰어 들지 않고서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중직이든 삼중직이든 목회자들이 삶의 현장에 있지 않으면 목회가 어떻게 사회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랍비들처럼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가려 뽑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자삼는 목회를 하셨어요. 접근을 달리 해야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도 일이 없는 목회자가 6~7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든 기존의 교인 몇 명이라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새 교회를 개척하려는 전통적인 목회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성도들이 줄어드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의 수평이동을 놓고 갈등하는 구조밖에 없어요. 틀에 박힌 목회지 개념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온 세상이 모두 찾아갈 목회지이고 목회의 영역입니다. 목사로

서 일할 자리를 찾는 10만 목회자가 다 직장을 갖고 고속도로 휴게소든 편의점이든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이웃을 매일같이 주님의 길로 인도한다면 교회가 1년에 한두 차례 전도 집회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는다는 가나안 성도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목사님의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메신저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메신저다.’ 이를 스스로 살아가고 있으시죠. SNS를 통해 길을 잃은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고요. 무려 19만 명의 팔로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가정, 직장, 사람과 사람 사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메신저의 삶을 살아야 할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 제가 페이스북에 열두 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나안 성도를 위한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SNS를 통해 매일 성도들이 말씀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도화된 교회의 한계를 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몇몇 목회자 분들이 배우겠다고 묻습니다. 문제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다 몇몇 악플을 접하면 다들 더 이상 계속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매일같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 직장 다닙니다. SNS 자체가 진흙탕이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진흙탕에 뛰어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이 흙탕물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물일수록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내려놓고 다가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을 교육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지요. 벌써 1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원장으로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실력으로 승부가 나는 곳입니다.
실력 없는 영성이란 의미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력을 길러야
그 실력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실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영성이라 한들
세상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 ■ 기독교 미디어 자체가 스스로 세상과 고립이나 차단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어떤 미디어든 들어가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살아내는 것이 미디어를 바꾸는 지름길이지 끼리끼리 모여서 미디어를 하나 만든다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대 미디어나 미디어 진입장벽이 없어진 현대는 복음이라는 콘텐츠를 보다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복음적 메시지를 얼마나 발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교육이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복음이 차고 넘치도록 가르치는 일이고, 그렇게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메신저에게 미디어 교육으로 적절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의 역할입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전달력 높게 만들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제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세계관교육이 이론(theory)이라면 미디어교육은 실천(practice)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운동력을 지닌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졌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모든 크리스천이 메신저로 부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낚는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낚기 위해 수많은 도구가 있어요. 직업이든 상품이든 그 도구가 전부 미디어가 될 수 있죠. 그렇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람이 복



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경향이 있을 때, 24시간 내내 복음이라는 콘텐츠를 흘러 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하듯이(벧전 3:15),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다음 세대가 복음을 먹고 자라고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 크리스천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김 ■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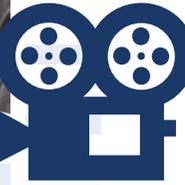
조정민 MBC 사회부·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국 부국장, IMBC 대표이사, 온누리교회 목사, CGN TV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베이직교회 목사이자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원장이다. 저서로는 『WHY JESUS 왜 예수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 『사람이 선물이다』, 『인생은 선물이다』, 『길을 찾는 사람』,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이자 이사이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원장: 조정민 목사)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무장된 기독교미디어인을 길러내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갈수록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잃어 가고, 특히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독교미디어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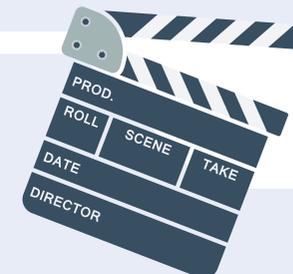
교육목표

바른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기독교 언론인의 양성
1인 미디어 시대가 요구하는 미디어 실무역량 강화
교회와 사회의 소통을 위해 연구하는 인재 육성

2009년 3월 1기를 시작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매년 2기씩 진행되며, 현재 12기가 진행되고 있다. 아카데미는 16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장소는 청담동에 위치한 베이직커뮤니티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조정민(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원장, 베이직커뮤니티교회), 신국원(총신대 교수), 이승구(합신대 교수), 김승욱(중앙대 교수), 강진구(고신대 교수) 등의 학자가 기독교세계관기초를 가르치며, 유지은(前 붐프로덕션 PD), 한정석(미래한국 편집위원), 오한웅(한마리곰미디어 대표)PD 등이 스토리텔링, 기획, 촬영, 편집 등 미디어 실무를 가르친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현재까지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다수의 졸업생들이 연출 및 조연출, 작가, 촬영기사, 편집기사, 미디어 강사 등에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고 각종 기독교영화제에 출품하여 수상하기도 하였다.

작년 겨울부터 여름, 겨울 수련회 기간에 교회별 기독교미디어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교회 수련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기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미디어를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교육하고, 직접 기초적인 제작 방법을 알려주어 미디어 시대의 메신저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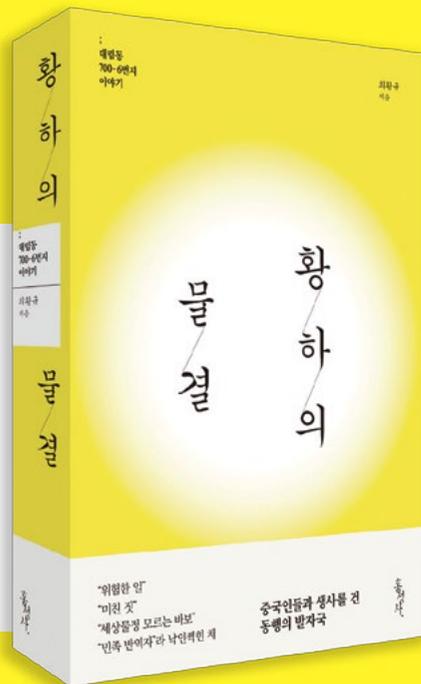


홈페이지 www.cmca.or.kr
E-mail cmca@worldview.or.kr
담당간사 홍정석(02-745-7237)

WORLDVIEW SPECIAL

황하의 문명

대림동
700-6번지
이야기



“위험한 일”
“미친 짓”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
“민족 반역자”라 낙인찍힌 채

중국인들과 생사를 건 동행의 발자국

“서울중국인교회는 우리 중국인들에게 아둘람굴 같은 교회입니다. 원통하고 고통당하는 중국인들의 피난처요 방패입니다. 당연히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세워야지요. 목사님이 우리 중국인들 돕다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당하신 거, 우리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중국인들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본문에서

최황규 지음/A5변형/320면/15,000원

종교에 갇힌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맞춰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이래야 해...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고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틀을 만들고
긴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뽐냅니다.

나와 다르면 눈을 흘기고,
내 생각과 다르면 귀를 닫지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찌르고 상처 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의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내주를 간청하는 일,
가장 큰 교만을 넘어뜨리는 일,
악함을 인정하는 일.

그것이 우리 자신을 개혁 Reformanda하는 첫 고백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항상 옳은 일,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한다.
그러나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하길 원하기에 그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 이생의 삶에서 존경을 받을 것이고 당신을 숭앙하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당신을 만나시고 당신을 도우시려고 임하실 것이다. ...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약함과 두려움과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조건 없이 드리는 것이다. ...
선한 의도보다는 순종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_죄렌 키에르케고르(1813-1855)

종교개혁을 기념할 자격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재조명하면서 오늘의 교회, 특히 한국교회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도할 계기가 아닌가 한다. 기본인권, 민주주의, 자연과학, 진보적 역사관 등 그 이후의 세계에 이룩한 공헌을 고려하면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였다 할 수 있다. 감사하면서도 오늘의 세계 기독교가 과연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것이다. 그 외의 모든 공헌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열매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6세기 수준의 종교개혁은 반복될 필요가 없다. 다행하게도 한국 교회 대부분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전통적인 정통교리를 수호한다. 기본적인 원칙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개혁은 루터와 칼뱅의 개혁만큼 근본적이지는 않고 그만큼 어렵지는 않다. 다만 말로만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의 행동과 삶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문화를 형성하면 개혁될 수 있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좀 더 충실하게 설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 본문이 의도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

한 것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그때의 천주교보다 결코 덜 부패했다 할 수 없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부패를 제거하는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역사에서 교회를 세습하고, 교단과 교계의 장이 되기 위하여 돈을 뿌리고, 목사끼리 칼부림을 하고, 세상도 용납하지 않는 부정을 저지르고도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던 교회는 한국 교회 밖에 없었다. 범직한 인간에게 이런 현상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할 수도 있다. 자연에도 시간이 지나면 질서가 흐트러지는 엔트로피(entropy) 법칙이 있고, 십대의 공부방도 그대로 두면 조금씩 지저분해진다. 세월이 500년이나 흘렀으니 교회도 더러워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주장이 제시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한국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름만 탓할 수는 없다. 같은 개신교회인데도 우리만큼 썩지 않은 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에 충실해서 꾸준히 경계하고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즉시즉시 청소했다면 비교적 깨끗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은 주위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아

나라 돈, 권력, 명예 같은 세속적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면 타락한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주위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고, 그런 일은 주로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릴 때였다. 종교개혁 때 천주교도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온갖 특권을 다 누릴 때였다.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핍박받는 소수였을 때는 순수했으나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하는 돈, 권력, 영향력을 가진 지배세력이 되자 타락하게 된 것이다. 물량적으로 커지니까 정부와 기업이 목사들의 눈치를 보고,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와 그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고, 기업인은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사업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속적인 성공이 영적인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만 것이다. 세속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것은 역시 돈이었다. 1517년 할버스타트와 마그데부르크의 젊은 주교였던 알베르트는 공석이 된 마인즈 교구까지 차지해서 추기경이 될 야심을 갖게 되었다. 막대한 돈을 교황에게 바치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 때문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마침 바티칸 궁전을 짓기 위하여 빚더미에 앉은 교황 레오 10세와 짜고 알베르트는 면죄부를 만들어 판매한 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그 면죄부가 루터가 토론회 제목으로 제시한 95개 조항의 중요한 내용이었고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다. 16세기에 비해서 오늘에는 돈의 위력이 훨씬 더 커졌고 따라서 돈에 대한 유혹도 그만큼 커졌다. 권력, 명예, 쾌락, 신분, 심지어 지식, 사랑 등 거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존재론적 유물론, 가치론적 물질주의, 정책으로서의 자본주의 등 오늘의 세상을 주도하는 사상의 핵심에 돈이 우뚝 서 있고 오늘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동물적 욕망과 연결된 하급가치인 돈이 종교에 개입하면 종교는 예외 없이 타

락하여 마술로 변질된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돈은 아합 시대 이스라엘에게 바알신과 같은 위치에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Max Weber)는 그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종교개혁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내적 금욕”(innerweltliche Askese)을 실천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부를 생산했으나, 그 소득으로 사치하지 않고 수도원이 아닌 시장 한가운데서 “금욕”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영국의 개신교 지도자 웨슬리는 그렇게 축적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라고 설교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의 생활철학은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도록 그것을 축적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오늘 한국 교회도 그런 생활방식을 채택하면 돈의 우상을 물리칠 수 있고 점점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쾌락중심의 문화를 비판하고 자연 파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과 견줄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의 개혁도 교회뿐만 아니라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와 타락하고 있는 현대문화를 치유하는 데 큰 공헌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의 종교개혁에 비하면 한국교회의 개혁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교리도, 기본 신조도 바꿀 필요가 없고 교회 제도도 조금만 수정하면 된다. 다만 바울이 “우상 숭배”(골 3:5)요 “일만 악의 뿌리”(딤후 6:10)라고 경고한 돈에 대한 탐심만 절제하면 된다. 그 절제는 우리 자신이 훌륭한 도덕군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이웃의 고통을 줄여 주는 사랑의 절제다. 이렇게 쉬운 개혁도 성취하지 못한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할 자격도 없지 않겠는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종교개혁과 기독교세계관운동

종교개혁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절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다. 내년이 500주년이다. 그것은 출애굽 같은 구속역사의 핵심 사건을 기념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성탄과 부활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직결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것이다. 오순절처럼 복음과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함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놓을 수 없는 기념일이다. 개신교의 출발점이며 특히 우리 기독교세계관 운동도 거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중세의 이원론적 세계관의 극복

종교개혁은 단지 교회의 개혁만이 아니다. 그것은 중세의 사회와 문화 전반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중세의 역사는 길다. 단일 문화로는 가장 긴 기간에 걸쳐있다. 어거스틴이 활동한 4세기 중반부터 르네상스가 절정에 이른 16세기까지 무려 1000여년에 걸쳐있다. 이 기간 동안 복음은 유럽에 완전히 정착했다. 로마뿐 아니라 북방에서 들어온 야만족까지 교화시켜 지금 우리가 아는 서구의 기독교적 문화를 이룩했었다. 지금도 유럽의 삶과 문화에는 그 자취가 역력히 남아 있다.

안타까운 것은 보편적 교회를 자처했던 로마 카톨릭이 복음을 상실한 것이다. 성경의 진리와 세계관은 초대교회 이래 꾸준히 그리스 로마의 문화 비전과 혼합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중세의 건축물이나 회화에 명백히 드러난다. 바실리카가 좋은 예이다. 본래 그리스 로마의 신전이나 공회당의 건축양식인 바실리카는 주랑이 벽체 없는 천정을 받치고 있는 형태이다. 교회의 건축은 이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달라진 것은 좌우에 날개를 달아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가 나타나게 했을 뿐이다.

이처럼 전통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보다 복음이 그 위에 덧붙여지는 중세의 종합은 심각한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문제를 배태하고 있었다. 그것은 모두 자연(그리스-로마 문화)과 은총(기독교 복음)의 이원론

적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중세는 이방문화라는 케익을 복음의 생크림으로 덮은 헝국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복음이 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배적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이기도 했다. 이는 지금도 프로렌스나 켈른 같은 도시 스카이라인 위로 높이 솟아있는 대성당의 위용이 성숙 이원론적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신칭의/이신득의

중세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카톨릭 신학 전반에 그대로 드러난다. 자연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Corpus Christi)으로 변한다는 화체설이 좋은 예이다. 구원론의 이원론적 이해는 더 심했다. 선행과 고행을 통해 노력하면 은총이 더해져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다. 행위 더하기 은혜의 구원론은 가장 잘못된 성경적 복음의 왜곡이었다. 이는 면죄부를 사면 연옥의 영혼이 천국에 이른다는 이단설을 낳아 교회의 부패를 심화시켰다. 결국 그것에 대한 루터의 항의가 종교개혁의 불을 붙였다.

잘 알려진 대로 루터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다. 성실히 선행과 고행을 했으나 구원의 감격은 고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다. 그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풀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확신과 평안에 이르게 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약 선지자의 말씀이요 그것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게시했다는 95개조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모두 회개하라 하셨다”라는 유명한 문구로 시작된다. 루터가 훗날 웨스회 의에서 했다는 말처럼 “어쩌다가 자신 한 명을 빼고 온 유럽천지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고 이처럼 철저히 복음을 떠나 있을 수 있는가”라는 참담한 상황 인식이 그 첫머리에 담겨 있다.

종교개혁 정신의 계승

종교개혁은 개신교의 출발이요 왜곡된 복음의 회복이다. 구속의 본질은 죄로 잃어버린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되찾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참된 기념은 개신교의 생일보다는 복음의 회복을 축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좁은 의미의 복음적 신학의 회복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개혁주의는 신학이 아니라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강조점은 루터의 복음적 구원론을 토대로 보다 삶 전체의 포괄적인 개혁을 지향했다. 그의 모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와 “하나님의 주권”(主權) 사상이며 그에 기초한 “경건” 즉 거룩한 구별된 삶인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칼빈의 종교개혁은 바른 복음의 회복과 함께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義)를 따라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롬6:20, 12:1-2) 함을 강조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개혁주의는 문화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안목이요, 이를 위해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의 태도이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사명은 이 개혁주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 미래의 도전에 부합한 형태로 재창조해내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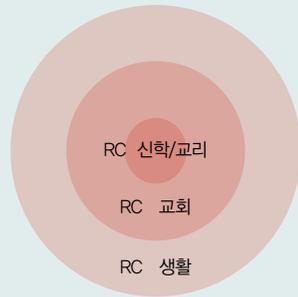
대학시절 종교개혁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개혁자들의 용기 있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도교수님께 종교개혁에는 피를 끊게 하는 것이 있다고 감히 말했던 것도 기억난다. 개혁 정신으로 준비하여 교회를 섬기겠다는 각오도 했었다. 하지만 이젠 내가 그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 두렵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주의는 산 자의 죽은 신앙이요, [참된]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이라는 말처럼 복음은 우리 시대에도 개혁을 통해 생생히 살아야 한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MP),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복있는사람) 등이 있다.



종교개혁의 정신과 한국교회의 현황



보통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를 “오직”(sola)이라는 단어와 연관시키는데, 내용상 원리인 “오직 은혜”(Sola gratia)와 “오직 믿음”(Sola fide), 그리고 형식상 원리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 대표적이다. 어떤 이는 그 이외에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까지 두 가지를 더 포함시켜 “다섯 가지 오직”(five solas)을 말하기도 한다.

종교개혁: 개혁자들로부터 우리까지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원리를 세 가지로 묘사하는 다섯 가지로 확대하든 그들의 주된 관심은 당시 로마 가톨릭(Roman Catholic, 이하 RC) 교회의 신앙 전통을 개

혁하는데 쏠려 있었다. 여기에서 “신앙 전통”이라 함은 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RC와 관련한 신학/교리, 교회, 생활을 총칭한다. 이 세 가지는 상호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개념상의 구별은 가능하다. 개혁자들의 개혁은 이 세 영역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발현할 수 있을까? 최소 두 가지 방향으로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첫째,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원리를 세 가지(혹은 다섯 가지) “오직”을 표준적 지침으로 삼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적 면모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오직”의 원

리에서 벗어난 신앙 양태나 문제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경향을 “신학/교리,” “교회,” “생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의 사안/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도 있다. 이 짧은 글에서 필자는 후자의 접근에 입각해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한 개혁의 사항이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개혁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당시처럼 RC로부터의 개혁을 당면 과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이전 종교들의 가치관과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시류(時流)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혼합적 가치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각 영역마다 질문의 형식으로 열거함으로써 개혁의 가치가 필요한 사안들 — 비록 포괄적이거나 균형 잡히게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 을 파악하도록 하자. (때로 이 사안들은 한 영역 이상에 걸칠 수도 있고, 영역에의 배속이 다소 모호할 수도 있다.)

(1) 신학/교리의 영역

- (i) 신학의 내용과 강조점이 목회 철학과 목회 사역 및 교우들의 삶에 얼마나 근본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 (ii) 교리가 단순히 지식 함양뿐 아니라 경건에의 자극과 삶에의 결실에 이르도록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는가? (아니 더욱 근본적으로, 교리 교육을 실시나 하고 있는가?)
- (iii) 영성의 확립에 있어 지성이 무시되거나 간과되곤 하는 무교적(巫敎的) 풍토를 — 그리하여 크리스천 마인드(Chris-

tian mind)의 함양과 계발이 내팽개쳐져 있는 현실을 — 어떻게 다룰 것인가?

(2) 교회의 영역

- (i) 적잖은 수의 교회들이 올바른 말씀 선포(복음·구원의 은택)의 책임을 점점 약화시키는 것 같은 추세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ii)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교회 생활에서 맨 뒷자리로 밀려 있는 것이 아닌가?
- (iii) 권징 또한 실효성을 잃은 채 구호와 언급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은가? (권징의 첫 단계가 “수찬 금지”인데 성찬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신앙 풍토에서 이런 조치가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 (iv) 교회 직분이 성경의 원리에 입각하기보다 유교적 가치관의 잔재 때문에 입신 양명, 감투, 승진 등의 그릇된 세상 정신과 짝하고 있지 않은가?
- (v) 한국 교회의 호칭 문화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어야 할 하나됨과 지체 의식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는데, 어떤 개선책이 있겠는가?
- (vi)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교회 이탈 현상[“가나안” 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생활의 영역

- (i) 어떻게 하면 공로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성화적 자태와 윤리적 수준을 일상의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을까?
- (ii) 아직도 그리스도의 주 되심(lordship) 하에 통합/복속되지 않은 삶의 양상/부분들은 무엇인가?
- (iii) 오늘날과 같은 자아주의·물질주의·쾌락주의(성·소비·음식·건강 등)의 풍토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을 것인가?
- (iv) 우리는 현실의 즐거움과 보람에만 눈이 멀어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갈구와 열망을 상실한 채 살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천성을 향하는 나그네/순례자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송인규 (前)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며,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이다. MF 간사와 총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신대학교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라큐스 대학에서 철학을(Ph. D)공부하였다. 저서로는「나의 주 나의 하나님」,「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복음과 지성」, 「고립된 성」,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이상 NP),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홍성사) 등이 있다.

종교개혁과 문자, 그리고 시대적 선도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그때까지 교회는 라틴어로 된 성경인 불가타(Vulgata)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즉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은 했지만, 그것을 다시 모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당시 라틴어는 상류층만 쓰던 언어이다. 원래 이 언어를 쓰던 이들은 사라지고 교회와 상류층에 문자만 남아 있었다. 즉 이것은 외국어로서, 더군다나 죽은 언어로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죽은 언어로 신앙을 유지했다. 성경도 라틴어이고, 예배의 모든 순서도 라틴어였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지도, 함께하지도 못했다.

교회는 왜 이 언어를 고집했는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즉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자격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천민들이 함부로 읽도록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찬식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한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그들에게서 구원에 필수적인 요소였고, 또한 가장 중요한 예배순서였다. 하지만 동일한 생각에서 빵은 나누어도 포도주는 성도들과 나누지 않았다. 즉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아니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벽을 깨는 일부터 시작했다. 종교개혁은 항상 말씀을 번역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그러나 그것은 목숨을 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당시 기독교권층은 성경이 번역되는 일에 대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가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돌려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에서 신약성경을 번역한 일은 대표적인 예이다. 작센 주의 현제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납치하는 형식으로 데려와 수도원의 골방에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영국에서도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나 그는 영국에서는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어서 대륙에서 번역한 후 번역된 성경

을 영국으로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다 번역하지 못하고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만다.

이만큼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성경이 번역되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가며 스스로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자 우상에 가리웠던 이전의 신앙이 자리할 곳이 없게 됐다. 바로 만인제사장설이 현실로 실증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가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매서인'이라 하여 성경, 즉 책을 파는 이들이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가르쳤다. 예배를 드리기 한, 두 시간 전에 교인들을 모아 놓고 글을 가르친 것이다. 그랬더니 배움의 한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왔다. 글을 배울 수 있다는 복음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끈 것이다.

당시 한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계일 선교사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선교사의 통찰력으로 아래와 같은 선교 보고서를 남겼다. '한글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결코 쓰여지지도 않고 멀시만 당했다. 여자들조차도 한글을 한 달 쯤이면 배울 수 있으니, 이렇게 쉬운 글자, 이런 보잘것없는 글자가 어디 쓸 데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그것은 성경과 기독교 문서들을 기다려 왔다. 4백 년 동안이나 잠에 빠져 거의 쓸모없었던 이 놀라운 정도로 쉬운 언어가 이제 깨어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한 말" 언문이라고 부르니, 그것은 이것이 중국 상형문자에 견주어 너무나 간단하고 쉽기 때문이다. 하

나님은 틀림없이 인생의 천한 것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쓸모없는 것을 들어 이미 있는 것을 없애신다.'

우리나라도 양반들의 횡포로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한글을 사용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글을 배워 공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놓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서는 중국의 언어인 한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그럼으로 백성들은 언어의 한계를 넘지 못해 공부를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신분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틀을 깬 것이다. 양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천민들도 글을 배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계일 선교사의 말처럼 한글은 400년 동안 복음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의 언어로 돌려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스스로 읽고, 공부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해주었다. 성도들은 글을 배워 누가 가르쳐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깨닫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믿음과 사상은 항상 세상을 변화시켰다. 교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신들의 언어로 벽을 만들고 있다. 과거 한국교회는 비록 소수였을지라도 고립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로 세상을 이끌었고,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그것은 먼저 깨달은 자의 의무였고 권리였다. 그러기에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 배출된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교회가 갇혀간다. 선도적 역할이 아니라 시대를 쫓고 있다. 그나마도 시대를 못 쫓아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겨질 때도 많다. 다시금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정신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이며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이다. 현재 굿미션네트워크 이사이자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장 및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장, 월드뷰 편집위원 등으로 섬기고 있다. 독일의 쾰른대학교(Th.M.)와 마르부르크대학교(Th.D.)에서 수학하였으며, 저서로는 「목회사회학, 현대사회 속의 기독교회」,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등이 있다.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이 질문은 해마다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들이 기념하는 종교개혁기념일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매우 크고 넓다. 만일의 이 질문이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당대의 부패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고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와 사회와 그런 신학을 형성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라면 중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라고 대답하면서 그 가까운 원인들을 다 찾아 대답해야 할 어렵고도 폭넓은 질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었다면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그 이전에 비슷한 주장을 했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c. 1330-84)처럼 정죄되거나 그의 글을 따르다가 1415년 7월 6일에 화형당한 얀 후스(John Huss, c. 1372-1415)나 1536년 10월 6일에 목이 비틀리고 화형당한 윌리엄 틸델(William Tyndale, c. 1494-1536)과 같이 정죄되고 화형당해 죽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가 종교개혁적 주장을 하고서도 사형당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에 따라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역사가들은 왜 다른 이들은 사형당해 죽었는데 루터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는가를 탐구하는 인간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의 질문은 종교개혁에 성공했건, 아니면 후스와 같이 화형당해 죽었던 당대에 종교개혁적 주장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한정해 보려고 한다.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1) 외적인 이유: 당대 교회와 사회의 외적인 부패

흔히 종교개혁 전야라고 불리던 중세 말기의 천주교회에는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목도할 만하게 아주 분명히 나타났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 성적인 부패였다.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딤후 3:2, 12; 딤후 1:6)에 반해서 성직자들의 독신제도를 고착화시킨 당시 천주교회 내의 성적인 부패는 매우 심각했다. 고위 성직자들이 실질적인 아내를 두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른 직업과 함께 성직을 물려주는 (2) 세습의 문제가 당대의 외적인 부패의 또 다른 단면이었다. 그것 배후에는 (3)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돈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물질 중심주의가 있었다. 당대에 문제가 되었던 면죄부를 파는 일도 결국은 누가 그 권한을 가지는가, 그리하여 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이는 성직 매매와 함께 당시의 모든 것이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 준다. 예를 들어서 당시 교황이던 레오 10세는 이미 2개의 주교직을 가진 호헨졸레른의 알베르트(Albert of Hohenzollern)에게 마인쯔(Mainz) 주교직을 제안하면서 1,200두카트를 요구했다. 알베르트는 700 두카트를 주장했으나 결국 1,000두카트로 낙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대가의 하나로 그의 영토 내에서 8년 동안 면죄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금의 절반은 알베르트가 가지고 절반은 베드로 성당 건축비로 내도록 했다고 한다. 물론 면죄부 판매인들은 성당 건축을 위한 기부를 백성들에게 요청하여 실질적인 문제

는 알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4) 명예와 힘을 휘두르는 것이 당시에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끔 한다. 그리고 (5) 일반 민중들은 성경적인 경건 보다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경건 생활의 형태를 유지하여 수없이 많은 미신을 양산해 갔다. 십자가 형상 자체에 의존했고 손으로 그 은 성호가 자신들을 악마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성자들의 무덤에 기도하면서 점차 성자숭배로 나아가는 등 온갖 미신이 난무하게 되었다. 당시 부활절 어간에만 일반 민중들에게 공개되었던 수없이 많은 성물들에 대한 숭배는 이런 미신을 조장하는 데 중요한 기원이 되었다.

(후에 살펴볼겠지만 이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와 몹시 흡사하여 우리를 놀라게 한다. 비록 시대적 차이와 상황의 차이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다를지라도 성적인 문제, 세습 문제, 돈 문제, 명예와 힘의 문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비성경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는 미신의 문제라는 본질은 뚜렷히 유사하다.) 어쩌면 이런 외적인 부패 때문에 종교개혁적 주장이 널리 퍼져 나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쉬웠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부패는 종교개혁의 궁극적 원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당대 교회의 이런 외적인 부패를 누구보다도 강하고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우신예찬>과 같은 풍자 소설을 쓰기도 했던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아마도 1469-1536) 같은 이는 결코 천주교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524년에 있었던 의지의 자유에 대한 루터와의 논쟁을 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천주교적인 사상을 유지했다. 그러므로 당대 사회와 교회의 타락, 부패는 종교개혁의 근원적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2) 근본적 이유: 당대 교회의 교리의 문제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근원적 이유는 무엇인가? 왜 자신들이 화형당할 줄 알면서도 종교개혁적 주장을 했는가? 그것은 결국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이 속해 있던 교회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벗어나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도덕적인 타락과 문제들 정도가 아니라 당대의 교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종교개혁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가능하게 한 것 역시 성경의 가르침이었다.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이 속해 있던 교회의 가르침과 예배와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발견한 것이다. 점차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당대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루터는 후에 “다른 사람들은 생활을 공격했지만, 나는 교리를 공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그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병폐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독교 이해 자체를 공격한 것이다. 그는 “기독교를 보존해야만 하는 사람들, 즉 주교들과 학자들 가운데에는 참된 기독교가 존재하기를 그만 두었다고 말할 뿐이다.”고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근본적 이유였다. 말하자면, 당대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제2의 종교개혁을 운운하지만 그것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기관과 공동체가 있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닌 상황에서만 언급될 수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패와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고쳐가고 갱신하는 일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교회가 아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합신 교수 외에도 연약 교회의 협동 목사로 말씀을 섬기면서,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

중세 말기의 교회, 루터 자신이 그 안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수도사가 되고, 신부님이 되어 미사를 집례하던 그 교회 공동체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가 아닌 공동체가 되어 버렸다.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은 중세 말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이 왜곡되어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어 많은 백성들을 오도(誤導)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오늘날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선포되거나, 성경의 복음을 왜곡하는 교회들은 모두 참된 교회가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천주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이 비판하였던 그 천주교적 교리인 (1) 성경과 전통을 다 강조하는 입장, (2) 은혜와 믿음으로만의 구원이 아닌 믿음에 더하여 은혜에 근거한 인간의 행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것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론(공로 구원론), (3)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는 십자가의 속죄를 피 없는 형태로 다시 제시하는(represent) 피 없는 제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미사관, (4) 그 피 없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司祭, priest)이 있다는 견해, (5) 사제의 축성 이후에 성찬의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의 본질(substance)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로 변한다는(transubstantiation) 화체설(化體說) 등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일탈적 가르침들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루터와 칼빈이 오늘날의 천주교회를 판단한다면 이런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명확히 이단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면 성경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성경이 성문화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시가 주어진다 주장, (2)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몰라도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 (3)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

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함께 고려되어 칭의가 이루어지며 구원이 주어진다는 주장 등. 그러므로 어느 시대이든지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며 종교개혁의 대상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한국 교회 대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겸손히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이다. 그 갱신의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의존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들의 문제를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1) 교회 세습 문제, (2) 목회자들의 재정적 투명성 문제, (3)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성적인 타락 문제, (4) 우리 주변 사람들의 가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일에 게으른 문제, 그리고 (5)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효험만 있으면 어떤 형태의 종교적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문제 등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우리들의 외적인 부패의 문제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드러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기에 먼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만 생각한다면 종교개혁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신경 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가운데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틀린 것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들, 우리의 교회 제도 가운데서 성경에 비추어 틀린 것들을 고쳐야 한다. ☺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_엡 3:17-19



세상을 바꾼 종교개혁 이야기

저자 스티븐 니콜스 | 역자 이용중 | 부흥과 개혁사 | 정가 11,000원
원제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은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다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안의 사소한 것들로 인한 논쟁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참 복음이란 무엇인가, 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박해와 순교까지 당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니콜스는 종교개혁기의 삶과 죽음을 놓고 벌인 신앙과 신학 논쟁의 시대를 통해 건강한 교회의 모토가 되어야 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종교개혁 다섯 가지 강령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각인시켜 줍니다.



종교개혁사상

저자 앨리스터 맥그래스 | 역자 최재건 | 기독교문서선교회 | 정가 23,000원
원제 Reformation Thought

제임스 패커의 뒤를 잇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래스의 저서로 포스트모던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고립시키지 말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다가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주제별로 엮여 있으며, 개별 인물에 대한 설명을 더하여 내용 구성이 친밀하게 되어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인문주의·스콜라주의 종교개혁사상, 로마가톨릭의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종교개혁, 관주도적인 종교개혁과 급진적인 종교개혁 독일의 종교개혁 스위스의 종교개혁, 유럽대륙의 종교개혁과 영국의 종교개혁 등이 모든 것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다루는 주제들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잘 짚어주고 종교개혁사상의 전체 구도가 저절로 정리되게 해 준다.



종교개혁은 끝났는가?

저자 마크 A. 놀, 캐롤린 나이스트롬 공저 | 역자 이재근 | 기독교문서선교회 | 정가 20,000원
원제 Is The Reformation Over?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는 지난 5백여 년의 긴 대립의 역사를 지나 왔다. 저자들은 미국 상황에서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로마 가톨릭과 복음주의 간의 소통과 화해 노력을 방해한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평가한다. 교회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책은 한국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씨름해야 할 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대한 시대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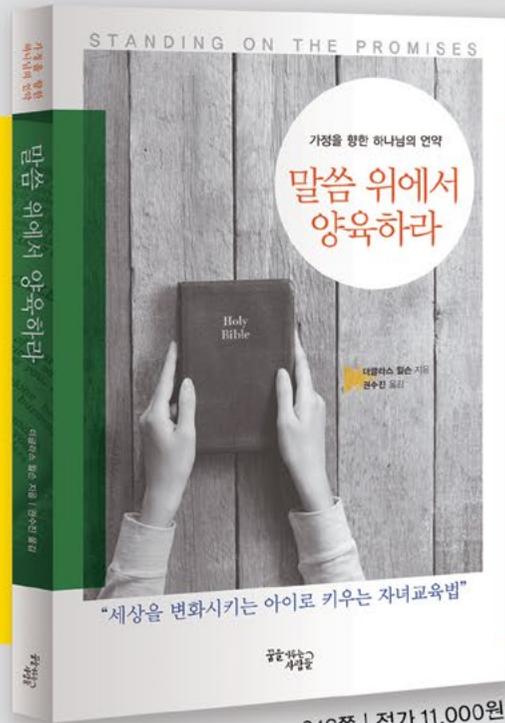


종교개혁과 미술

저자 서성록 외 6명 | 예경 | 정가 16,000원

루터와 칼뱅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예술가들. 뒤러, 크라나흐, 홀바인, 브뤼헬, 렘브란트 등 이름만 들어도 작품이 떠오르는 이 서양 미술의 거장들은 자신들 고유의 영역, 곧 '미술'이라는 행위를 통해 사회에서 지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까지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를 미술사학과 서양화, 철학 등을 전공한 저자들이 대중을 위해 평이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중세 역사의 한 단면인 종교개혁의 시기를 이해하는 데 읽는 재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 삽입된 80여 점의 작품들은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각 작가의 회화를 이해하는 데 수월하도록 도와준다.

“말씀을 통해 완성하는 믿음의 가정”



248쪽 | 정가 11,000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 위에서 양육하라

더글라스 윌슨 지음 | 권수신 옮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로 키우는 자녀교육법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들의 가장 큰 소명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이 언어, 관습, 역사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된 문화를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정의 문화는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적인 지혜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에 순종하는 가정은 바로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충실하게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문화를 우리의 가정에 세우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History Taking

시사문화큐티
기독교세계관을 만나다

물고 답하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

History Taking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와 환자의 첫 만남은 History Taking, '문진'이라는 절차로 시작된다. 둘 다 처음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 이제부터 서로 알아가야 한다. 처음에는 서로 알고 싶은 내용이 사뭇 다르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진다.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첫 번째 중요한 과정이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문진이다. 말 그대로 질문하고 진찰하는 것이다. 환자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듣지 못하면 의사는 환자를 알 수 없다. 올바른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환자의 답을 들으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전문가적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환자의 이야기를 듣되, 체계적으로 들어야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는 임상과 관련된 강의의 시작으로 '진단학'을 가르치며, 진단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열면 가장 먼저 소개되는 내용이 History Taking이다.

이러한 문진에는 보통 8~10개 정도의 구성요소가 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그중 필요한 것들만을 환자상태에 맞게 저절로 질문하게 되는 날이 오지만, 그전까지는 체계적인 질문의 훈련을 위해서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분석하여 질문하는 연습을 해야 하며, 질문이 겨냥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머리 속에 질문의 최종 목표에 관한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로 묻는 것은 환자의 전반적인 프로파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질문은 '환자의 이름'이다. 의사에게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때론 엉뚱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이 많은 경우 환자대기실에서 호명했을 때, 비슷한 다른 환자가 진료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혜숙"씨 와 "해숙"씨는 다르지 않은가.

이름 확인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환자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 받고 있다. 중요한 약물의 경우 투약의 오류를 막기 위해 반드시 투약 전 환자 이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의사에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

이름 외에 나이, 결혼 여부, 교육정도, 직업, 살고 있는 환경 등을 질문한다. 이런 질문들은 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이지만 질병과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묻게 되는 질문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것은 'Chief Complaints'라고 하는 '환자의 주요 호소증상'을 말한다. '어지러워요', '배가 아파요', '속이 쓰려요', '뭔가 만져져요', '불안해요', '항상 피곤해요'.....

의사는 환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주 증상을 들으면서 진단명이 떠오를 수도 있고,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다.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한다. 환자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 보아야 한다. 보통 이러한 주 증상을 크게 나누면 통증과 관련된 증상과 그렇지 않은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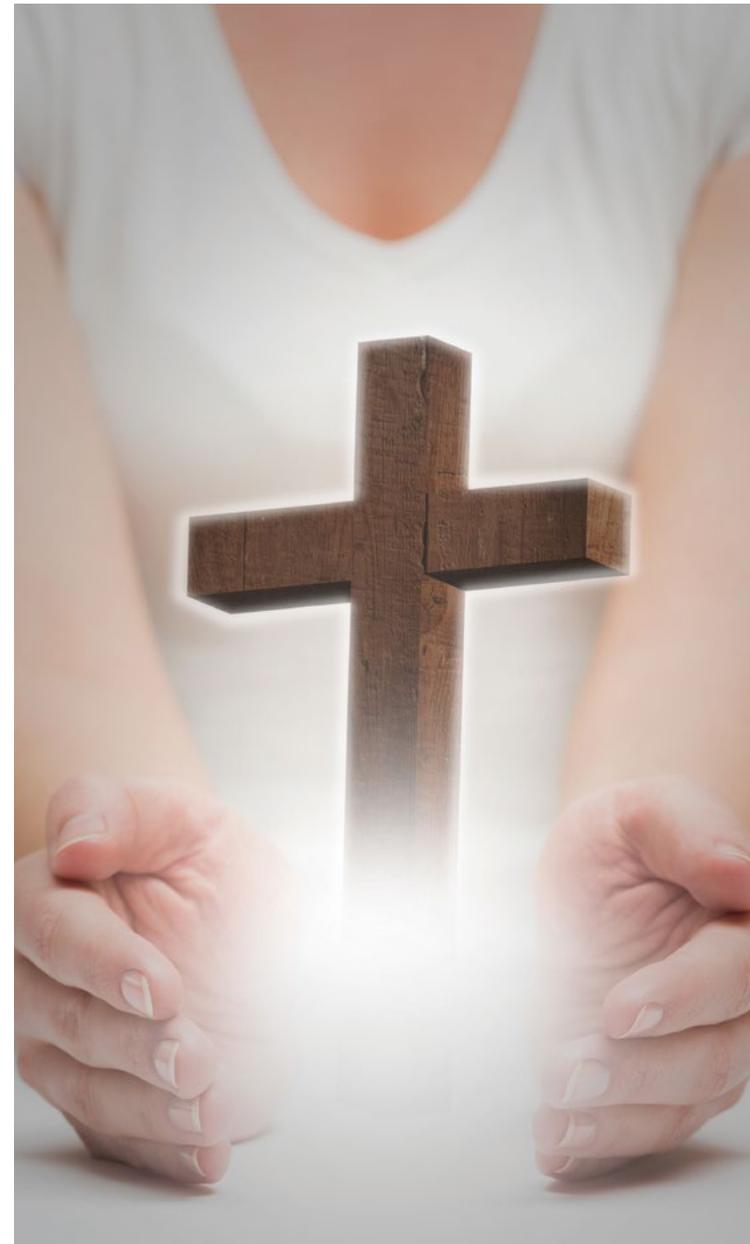
보다 더 많은 판단의 근거를 모으기 위해 조금 더 환자의 주 증상을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필요로 한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의과대학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논리의 전개가 아닌 그저 그의 이름만이 허무하게 쓰인다. 다른 아닌 의과대학생들의 전유물과도 같은 'mnemonic(단어나 문장의 첫 글자 등을 따서 말을 만들어 기억을 돕는 연상법)'을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불러보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특히 통증과 관련된 증상의 특징을 알기 위해 사용된다.

어떤 환자가 두통, 복통, 허리통증, 생리통 등 통증을 주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의사들은 소크라테스를 사용하여 통증의 성질을 규명하는 첫 번째 노력을 한다. 즉, SOCRATES에서 S는 Site(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어디인가?), O는 Onset(통증이 갑자기 혹은 점진적으로 느껴졌는가?, 처음엔 무시할 정도였으나 점점 더 심해졌는가?), C는 Character(지속적인 통증인가?,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통증 인가?), 그리고 R은 Radiation(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는 것처럼 통증이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가?), A는 Alleviating factors(어떤 경우에 통증이 완화되는가?), T는 Timing(언제부터 통증의 증상이 느껴졌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는가?), E는 Exacerbating factors(어떤 경우에 통증이 악화되는가?) 마지막으로 S는 Severity(통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가? 수면에 영향을 주는가?)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현재에도 의사들을 도와주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부터는 환자가 이야기한 주 증상을 중심으로 연관된 다른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제 그저 진단절차의 빙산의 일각만을 보았을 뿐이다. 앞으로도 환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 최종 진단의 의사결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History Taking에는 환자의 현재 증상도 면밀히 들어야 하지만 환자의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여정이 또한 중요하다. 'Past History'라고 하는 과거병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차례이다. 이전에 치료받고 있는 다른 질병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약이 있는지, 특별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수술한 적이 있는지, 임신과 출산력은 어땠는지, 수술한 적이 있는지 등...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그리고 Family history, Social history등을 넘어 Review of System(계통문진)이라는 단계까지 가야 겨우 1단계를 마치게 된다. 참 어려워 보인다.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다. 정말 수많은 History가 있다.

사람이 태어 시절, 기능을 하는 오감 중 첫번째 감각이 듣는 것이고, 삶을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감각이 듣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와의 첫 만남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잘 들어야 좋은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잘 들어야 좋은 치료가 가능하다. 듣기 위해 진료실로 향한다. 새로운 환자가 들어온다. 또 다시 첫 만남이다. History Again.



기독교세계관을 만나다

26살. 진로를 찾아 방향하다가 뒤늦게 기독교교육학과로 편입하여 수강신청을 앞두고 있었다. 우습지만 나는 그때 '기독교세계관'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과목소개에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는 문구가 있었다. 특별히 '관점', '세계관', '세상'이라는 단어들에 흥미로워 보였다. 그래서 클릭. 그렇게 기독교세계관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첫 수업부터 문화적 충격이 있었다. '뿌로로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평가?' 지난 학기에 우수한 성적을 받은 에세이 주제였다. 아직 기독교세계관이라는 단어도 어색했던 시기였는데, 뿌로로를 뭐 어떻게 한다고?! 유아 프로그램인 '뿌로로'까지 기독교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다. 그렇다면 '포르노'도 기독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포(뿌)르노와 발음이 비슷한 뿌로로 때문에 이런 장난스런 생각이 스쳐갔다. 그런데 그 불온한(?) 생각이 머리를 쳤다. '아니, 뿌로로나 뿌르로나 똑같은 영상매체고, 시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집중력을 갖게 만드는 것도 비슷하고 심지어 중독성까지 같잖아! 그렇다면 조금 위험한 발상이지만 포르노도 기독교세계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시작된 호기심은 좀처럼 머리에서 떠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수업 내내 이 생각뿐이었다. 교수님이 수업



김영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영어과정(AGS)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목회학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CTC(크리스천싱킹센터, 대표 유경상)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중이며 신촌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별히 크리스천 성교육을 연구하며 대안학교와 교회 수련회에서 특강으로 섬기고 있다.



을 정리하며 말씀하셨다. “특별히 기독교세계관적 평가를 위해 에세이를 쓸 때는 주제를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주제라면 더욱 좋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수님께 찾아가서 물었다. “그렇다면 교수님... 주제로 포르노를 선정해도 됩니까...?” “그럼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내가 남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문제의식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바로 포르노가 아니었던가. ‘나는 크리스천 입에도 불구하고 왜 아동을 끊을 수 없는가?’ 이 부끄러운 질문으로 씨름하던 나에게 이번 에세이가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래서 시작했다. ‘포르노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평가.’ 누군가에게는 이 제목 자체가 뽀로로보다 더 충격적일 수도 있겠다. 에세이의 개요를 잡으면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세계관의 틀을 알게 되었고 그 틀을 가지고 포르노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사실 타락파트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포르노는 무엇보다 성(sex)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성과 관련된 범 죄는 우리 주변에 넘쳐 난다. 포털 사이트에서 ‘성범죄’를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뉴스가 나오는지 알 수 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최근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급증했다는 기사였다. 타락은 밀도 끝도 없이 진행 되는 것만 같았다.

19

타락 파트와 달리 창조 파트는 가장 어렵게 느껴졌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창조)하신 성의 모습은 마치 아동을 보지 않는 남학생을 찾는 것만큼 희귀해 보였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성에 관련된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한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성을 터부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사탄이 성을 창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비틀어지고 왜곡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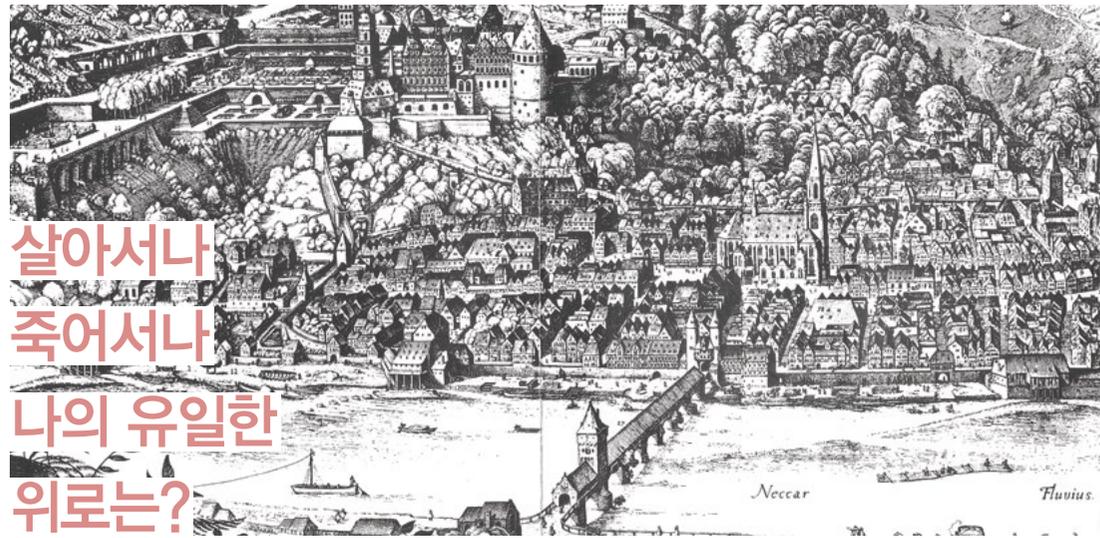


구속 파트에서는 그 비틀어진 성(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역할이 요구된다. 뒷집 지고 세상의 타락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창조의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구속 파트의 예를 찾으면서 발견한 놀라운 교회가 있었다. 바로 미국에 있는 ‘XXX Church’인데 그 교회 목사님 두 분은 포르노 박람회에서 자신들의 부스를 만들고 박람회에 찾아오는 포르노 구입자들에게 복음책자를 나눠 주고 있었다. 포르노 박람회 ‘박’에서 대적기도를 하며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Jesus Loves Porn Star(예수님은 포르노 스타를 사랑하신다)”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안’에서 그들과 접촉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도전이 되었다. 그들은 개인의 순결만을 고수하는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에세이를 마치면서 나의 생각이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과 달리 포르노에서 묘사되는 성이 얼마나 도구적으로 쓰이는지를 발견하였다. 포르노는 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의 의미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었다. 이러한 성의 창조이도를 모르면 단순히 금지로만 일관할 수밖에 없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포르노의 타락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소중함이었다. 학기 말에 에세이 발표자로 선정되었다. 그 발표를 계기로 CTC기독교세

계관 교육센터(유경상 대표)의 초대를 받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독교세계관 성교육’을 강의하게 되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대안학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특강을 이어 가고 있다. 가장 감사한 점이 있다면 에세이를 쓴 이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마치 안경을 쓰기 전과 후의 시력 차이를 느끼듯 주변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다. 뽀로로와 포르노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던 나의 시선에 변화가 일어났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었다. (지금도 그런 세계관의 영향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 문화에서 자라면서 목사나 선교사 같은 복음적인 일은 선하고,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했다. 음악을 들을 때도 CCM만 듣고, 책을 읽을 때도 늘 신앙서적에 편중되어 있었다. 세상을 둘로 나누고 그중에 거룩해 보이는 쪽만 선택하며 살아 왔던 것이다. 하지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렌즈가 보여 준 세상은 버려야 할 세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기독교세계관의 틀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 속의 ‘희망’과도 같았다. 심지어 포르노까지도 포괄할 만큼 넓은 희망이었다!



Heidelberg, 1620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월드뷰>로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해설을 기획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관점에서 '세상을(월드) 보는 것(뷰)'은 나름 재미있는 시도가 생각되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16세기 독일에서 작성된 이 요리문답이 21세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시기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분들이나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요리문답에서 고백한 내용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읽어 내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즐거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16세기의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라인 강의 지류인 네카르 강변에 세워진 도시이다. 1386년에 세워진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독일 최초의 대학교, 헤켈을 포함한 많은 철학자와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막스 베버 등이 모두 이 대학에서 가르쳤다.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마르틴 루터의 후계자인 필립 멜란히톤, 칼빈과 동역한 스트라스부르의 마르틴 부셔와 같은 사람도 이 대학 출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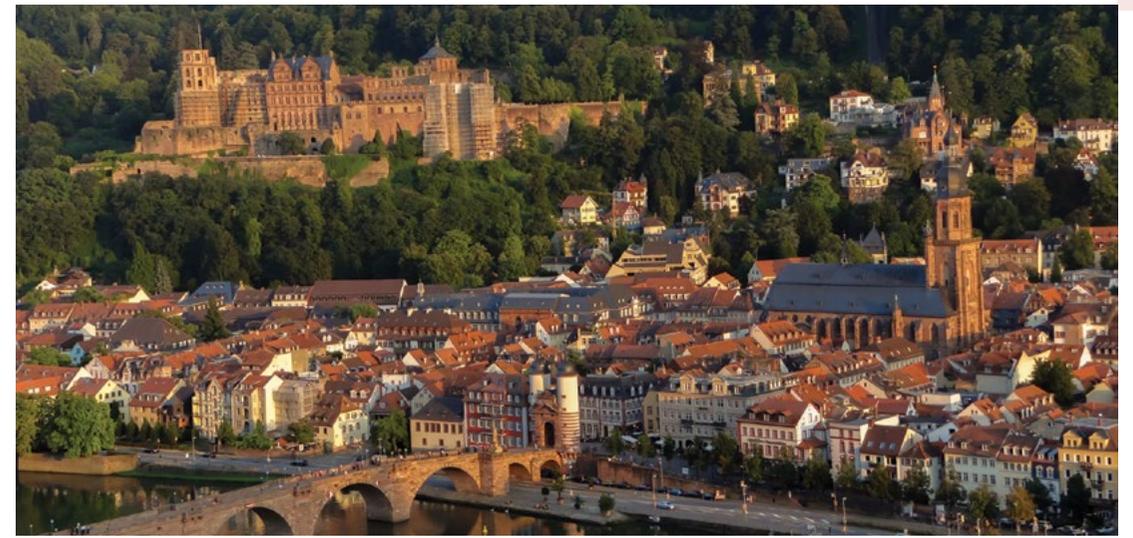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로고
대학의 표어는 '셈페르 아페르투스'(배움의 책이 '언제나 열려있다')이다.



김현수 김현수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옳을 노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차근차근 함께 묻고 답해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편 50:23)의 찬양이 삶으로 고백되기 바라며 첫 질문을 묻습니다.



Heidelberg, 2013

16세기 독일은 신성로마제국에 포함되어 있었다. 제국은 크고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곱 제후에게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팔츠 영방(領邦)의 수도인 하이델베르크에 거주하는 팔츠의 제후는 일곱 선제후(選帝侯) 중의 하나로서 제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동부의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를 붙이고 토론을 제안한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지만, 그 토론은 이듬해인 1518년 4월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어졌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도사이던 루터는 1518년 봄에 하이델베르크에 와서 '하이델베르크 명제'를 발표하면서 로마 교회의 신학 체계가 지니는 중요한 약점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개혁의 일은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들에게로 이어졌다. 또한 팔츠의 선제후들 중에서도 개혁의 진영에 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프리드리히 2세(1544-56년 재위)와 오토 하인리히(1556-59

년 재위)가 개혁의 뿌리를 내렸고, 그 뒤를 이은 프리드리히 3세(1559-76년 재위)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결실을 거두었다.¹⁾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3년) 살펴보기

팔츠의 선제후가 된 프리드리히 3세는 성찬에 대한 논쟁을 과격하게 전개하던 사람들을 해직시키고 대신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1536-87)와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1534-83)라는 젊은 신학자를 청빙하였다. 그들은 각각 제네바와 비텐베르크에서 개혁 신앙과 신학을 배우고 고향에 돌아가서 활동하였으나 그들이 가르치는 개혁 신앙 때문에 모두 자기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이었다. 프리드리히 3세는 팔츠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생활에 열매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에게 요리문답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1563년 1월에 프리드리히 3세의 서문과 함께 하이델베르

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십시오. 유해무, 김현수 공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와 신학」(성약출판사, 2006); 라일 비어마 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입문」(부흥과개혁사, 2012).

크 요리문답이 반포되었다. 그 서문에서는 저작권에 대하여 이렇게 밝힌다.

따라서 이곳의 신학부 교수회와 모든 시찰 감독들 그리고 고명한 목사님들의 충고와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의 요약, 즉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리문답을 독일어와 라틴어로 작성하여 출판에 부칩니다.

서문에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에 "신학부 교수회와 모든 시찰 감독들 그리고 고명한 목사님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적으로 택한 것이므로, 이 요리문답은 공동의 저작이고 동시에 팔츠 교회의 신앙고백서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각자 개별적으로 작성한 요리문답들도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서 직접 인용한 부분들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1542년)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의 "짧은 신앙고백서"(1559년)와 비슷한 부분도 있다. 지면 관계상 제네바 요리문답과 비슷한 부분만 인용하겠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의 답)

비와 가뭄, 우박, 폭풍과 화창한 날씨, 다산과 불모, 건강과 질병을 보내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요약하면 모든 일이 그분의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제네바 요리문답 27문의 답)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 프리드리히 3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에 독일에서 작성된 신앙고백서이지만, 위의 인용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위스 개혁자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특히 올레비아누스는 칼빈 외에도 하인리히 불링거와 같은 다른 스위스 개혁자들과 교류가 있었고, 우르시누스는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의 동역자인 멜란히톤에게 7-8년 동안 배운 사람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에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개혁 전통과 스위스의 개혁 전통을 모두 아우르고 또한 종교개혁 제1세대의 신앙을 더 정교한 언어로 고백한 요리문답이라 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독일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걸쳐 지금까지 많은 교회의 사랑을 받는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하겠다.

나의 위로와 비참을 살펴보는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따뜻하며 목회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제1문만 읽어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²⁾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제1문은 '당신의 유일한 위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대답에도 '나'라는 말이 아홉 번(독일어 원문에는 10번)이나 나온다. 기독교 신앙을 명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담아서 개인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고백을 따라 복창하는 사람은 마음까지도 따뜻해짐을 맛보지만, 어떤 이들은 혹시 주관주의적이거나 감정적인 데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 장로교회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였던 워필드(1851-1921)는 '하나님의 영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 올레비아누스

광이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하나님 중심적이지만, 인간의 위로를 이야기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간론적'이라고 비판하였는데 그의 주장이 장로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널리 인정되고 있다.³⁾

그렇지만 워필드의 주장은 단면적이다. 제1문답은 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문장은 사람의 유일한 위로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에 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문장에서는 각각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분의 성신'을 주어로 삼아서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삼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고백하는 것이다. '위로 - 그리스도의 소유 - 삼위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성은 '나의 유일한 위로'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 있음을

2 여기에서 인용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립개신교회 교육위원회에서 번역한 것을 따른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성약출판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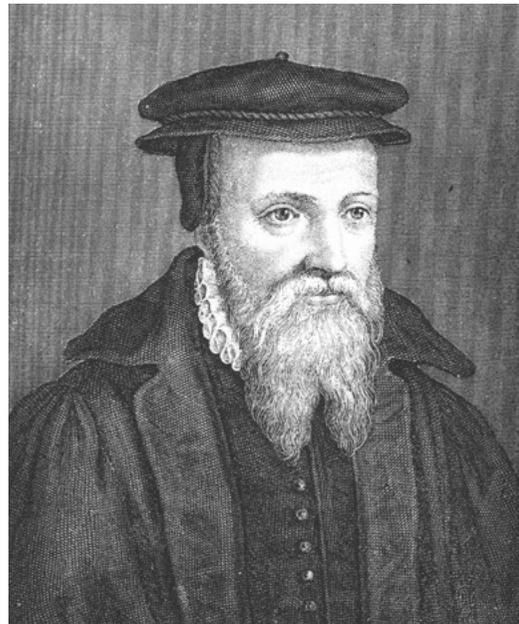
3 B. B. Warfield, "The first Question of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in his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1), 379.

나타낸다. 위로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위로의 근원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찾은 데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원숙함이 잘 드러난다.

나의 비참함과 위로에 대한 성경적 교훈

‘위로’라는 말로 구원을 표현한 예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잘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뜻을 보이셨다. 이사야서 40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첫마디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는 말이다. 이어서 선지자는 그 위로의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복역(服役)의 때를 마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아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것을 보고서, 선지자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사 49:13) 하고 이야기한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사 52:9. 참조, 51:12).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위로’와 ‘구속’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사 66:13)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오직 여호와와의 구속하심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위로’라는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눅 2:25)라고 불린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3:15부터 내려오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와 마음 상한 자, 포로 되고 갇힌 자에게 전하시면서 그 예언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사 61:1-3; 눅 4:16-21) 하고 선언하셨다.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위로’라는 말이 총 여섯 번 나오는데(1, 44, 52, 53, 57, 58문) 그 문맥을 보면 대체로 영원한 나라와 관련이 있다. 특히 ‘음부에 내려가심’(44문), ‘심판하러 오실 것’(52문), ‘육신의 부활’(57문), ‘영원한 생명’(58문) 등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가를 깊이 있게 다룬다. 이처럼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위로는 살아서 뿐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나라에까지 미치는 그러한 위로이다.

나의 위로와 비참한 현실 - 16세기와 21세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관점에서 16세기의 신자들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려 할 때에, 우선 이렇게 제1주일에서 말하는 위로와 비참함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16세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을 개인이 경험하는 위로로 고백하되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여서 고백하였다. 이러한 고백은 굉장한 힘을 지닌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그 근거를 둔 위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특히 사람의 선행을 구원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가르치던 로마교회에서는 이러한 확신이 주는 위로를 경험할 수 없었다. 따라서 로마 교회에서는 16세기 개신교회들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단’이라고 비난하였다.

16세기 선배들의 그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된다. 고독과 우울함에서 벗어나려고 ‘위로’를 찾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현대의 개인주의적이고 감정적이며 경험주의적인 경향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무엇을 찾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개인의 선행이나 감정이나 경험에 근거한 확신은 오래 갈 수 없다.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위로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의 위로는 나의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지, 나의 경험이 위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비참함’이라는 요리문답의 표현은 16세기의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요리문답 원문의 독일어 ‘엘렌트(Elend)’는 추방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데 기여한 세 사람 - 프리드리히 3세, 올레비아누스, 우르시누스 - 은 모두 개혁 신앙을 가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반포 450주년 기념 포스터
믿음의 힘

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였고 주님의 섭리로 인해 하이델베르크로 온 사람들이었다.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은 고향에서 추방된 사람들이었고 나그네의 비참함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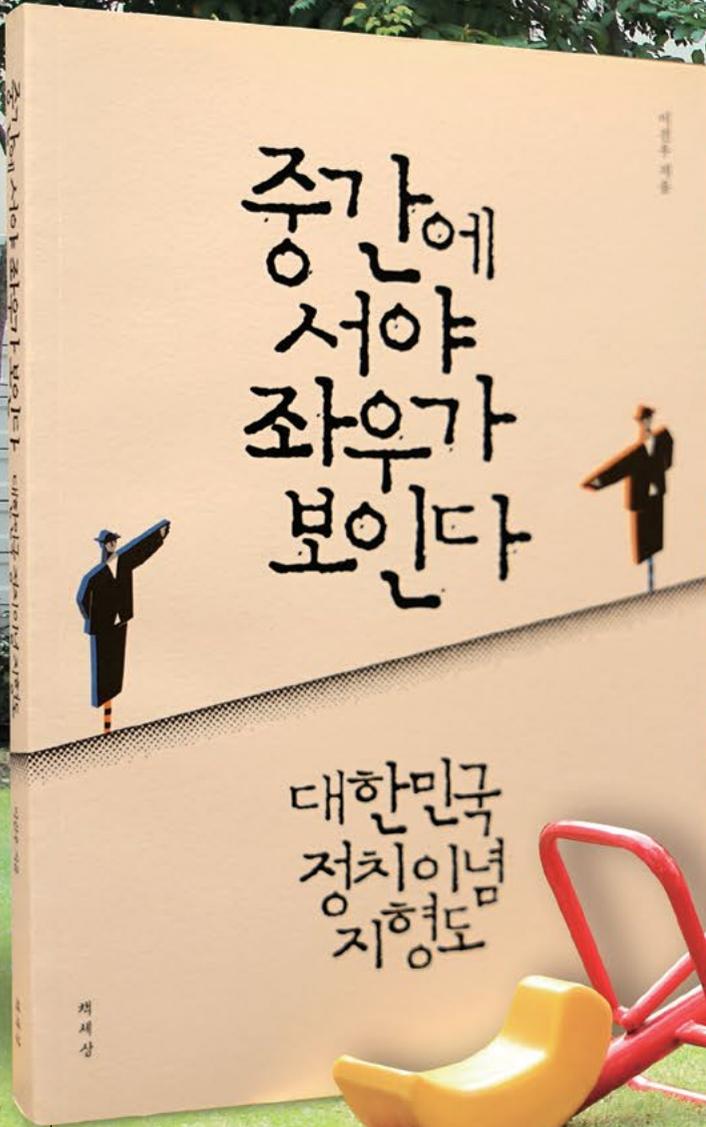
‘비참함’을 개인적인 느낌으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난 망국민(亡國民)임을 알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이다. 이러한 비참함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도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지만, 그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실 때에 우리의 근원적인 비참함은 끝날 것이고, 나의 유일한 위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우주적인 차원에서 완성될 것이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나의 유일한 위로”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이라는 표현 때문에 매우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 같지만, 동시에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죄로 인한 타락,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일에 관한 거대한 성경 역사가 깔려 있다. 따라서 요리문답의 고백은 매우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포괄적인 고백인 것이다.

위로와 비참함에 대한 바른 이해는 21세기의 우리에게도 절실하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한다.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난데, 그것은 ‘소속감’과 관련이 있다. 생활이 더 바쁘면 바쁠수록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공허감이 있어서 사회 관계망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한 21세기의 우리에게 16세기의 선배들은 ‘위로와 비참함’을 화두로 던진다.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단어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다.

4 F. Klooster, Our Only Comfort: A Comprehensive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Faith Alive, 2001), 63-68.
5 테아 판 할세마,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 (성약출판사, 2006).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땡스북'은 사단법인 땡스기브에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작합니다. '땡스북'에서 선정한 인문도서를 매월 '월드뷰'에서 소개합니다.



● Recommend **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 이진우 저 | 책세상

좌우의 구별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통해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지형을 그려봄으로써 정치가 궁극적으로 '중도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좌우와 평등, 자율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등 대한민국의 6가지 핵심 이슈를 바라보는 좌파와 우파의 정치이념 지형을 도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Thankgive's Think

중도, 깨어 있는 자리 VS 어중간한 자리

가야할 곳을 응시한 채 외줄 위에 나의 몸을 신는다. 기다란 장대를 잡은 두 손에 땀이 고인다. 양팔의 각도, 다리의 흔들림, 바람의 흐름, 응시하는 눈. 높다란 외줄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땀이 흐르는 긴장감이 전해지거늘, 홀로 외로이 외줄을 타는 어름산이는 어떡하랴. 그런 외중에 어름산이는 장대를 부채로 바꿔들고는 높고 높은 허공으로 뿔을 뿜는다. 그 순간, 여린 긴장감 속에 있던 관중들은 어름산이를 통해 안정감을 얻는다. 긴장감과 안정감. 괴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이념적 갈등이 없던 적이 있었는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어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에서 눈을 돌리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중도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진정 이것이 중도란 말인가? 이것만이 진부한 갈등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인가?

진정한 중도(中道)는 맹물마냥 아무런 맛과 향이 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념적 갈등 속에 갇혀 '꼴통 보수'와 '좌파 빨갱이'를 외치는 게 아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응시할 줄 알며, 우파의 안정감과 좌파의 긴장감 사이에서 가장 좋은 접점을 끈질기게 찾는 것이 중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도는 편한 길이 아니다. 고민의 깊이와 지속성이 필요한 불편한 길이다. 진정한 중도의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걸어간다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좌우의 대립과 긴장 속에서 재담과 재주를 부릴 줄 아는 여유와 안정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keyworld

중간 | 적대적 이념갈등 | 건강한 사회 | 대결 | 건강한 정치 | 중도좌파 | 중도우파

THANKS BOOK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अपना.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헤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교 지식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서평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나다』

하나님의 손길, 그 암호에 접선하라



미야타 미츠오 지 | 양현혜 역
홍성사

I. 책에 가까이

흥미로운 책 한권이 배달되었다. 홍성사에서 펴낸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나다>(미야타 미츠오 지음, 양현혜 편역, 2015). 그간 잘 알려진 익숙한 동화에 관한 에세이여서 그런지 거부감 없이 책장이 넘어갔다. 책읽기에 시간가는 줄 몰랐던 이유는 소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서이기도 했지만, 동화를 이렇게 독해해 내다니! 동화 해석이 독창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굳이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동화, 인문학적으로 들여다보기”, “동화, 그 신화·철학적 접근”, “동화, 기독교세계관으로 다시 읽다”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겠다.

책은 편역이므로, 저자의 여러 글을 한 권에 묶은 것이다. 편집의 의도는 제목에서 드러나는데, 동화는 문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에서 보다 깊은 의미의 심해로 나아가는 길이라 본다. 전제는 이렇다: 동화는 절대가치가 묻혀있는 지혜의 보고이다. 동화에는 심오한 사유를 발견할 수 있는 의미의 은하계이다. 저자의 풍부한 인문학적 임상실험은 이러한 믿음을 보여준다: 동화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놀라운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어쩌면 창조주께서 피조의 세계에 장식해 놓으신 보이지 않는 가치와 의미의 세계가 내재해 있다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에서 한발자국씩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사유가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나다> 아닌가 한다.

II. “발칙한” 미야타 미츠오

저자는 동화에 대한 관점을 혁신하라고 말한다. 경쟁사회, 이윤사회, 압박사회에서 힘들고 지칠 때 필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이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유형, 무형의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자기 실현”에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때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어떤 행동이 현대인들을 자기 실현에 다가가도록 도와줄 것인가. 미츠오는 동화를 추천한다. 동화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동화 안에 “인생의 의미”, “자기의 존재의 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안내한다. 동화를 만나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그 동화는 성공한 셈이다. 동화는 “자기 자신을 향해 여행”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왕국을 향한 여행”이라고 규정해준다. 동화를 다루는 미츠오의 발상은 그러므로 발칙하다. 기존 관념을 확대시키며 동화를 어떤 종교적 가치를 담고있는 경전처럼 읽어보라고 권하기 때문이다. 그런 소개가 결코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것은 왜일까. 그의 부드러운 자세 때문이 아닐까? “... 동화의 세계는 우리의 감정과 감수성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가 가능한 정신의 실험장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열린 상상력을 배양해 줍니다. 이 회화적인 언어가 만들어 내는 경험의 공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붙잡혀 있었던 일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한층 유연한 감수성과 삶의 방식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경험은 근원적인 경험으로까지 되돌려져 투명하게 되고, 우리는 인생의 심층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p.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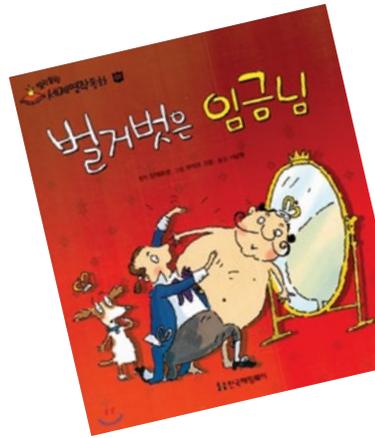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D.).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이 책은 네 개의 동화를 상세하게 읽어내며, 거기에서 삶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림 형제의 <생명의 물>에 관해서는 “마르지 않는 샘을 찾아서”, 안데르센의 <별거벗은 임금님>은 “진실의 거울과 마주하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는 “시간의 수수께끼를 풀다”, 그림 형제의 <대부가 된 죽음의 신>은 “삶과 죽음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다뤄진다. 여기에 다양한 접근은 당연하다: 심리학, 신화, 종교학 등이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독자는 저자가 안내하는 울창한 숲으로 인도되고, 이야기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도 들겠지만, 미츠오는 차근차근 숲 속의 길이 인간 내면이나 사회의 단층이라 제시하며, 어떻게 하면 내면과 의미 여행을 즐길 수 있는지 길잡이가 되어준다. 발칙한 그러나 친절한, 그리고 고마운 미츠오씨!

III. 동화, 현실의 작은 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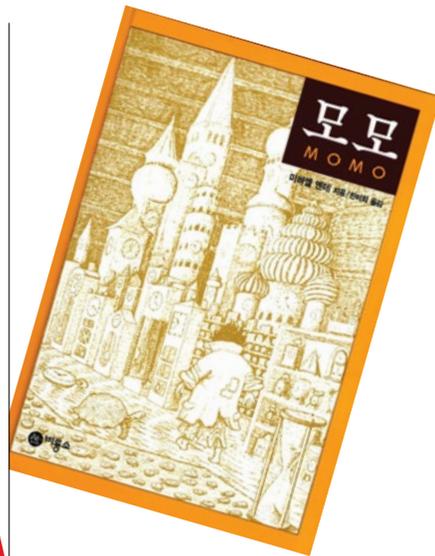
그림 형제의 <생명의 물>은 “내면 탐구 여행 이야기 중 대표적인 작품”에 속한다. 여기서는 물의 상징성, 형제들의 성격과 행동, 갈등과 해결

등이 얽혀져 있는데, 저자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기쁨과 활력과 내적인 풍요로움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이 생명의 물 없이는 비록 우리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지식이 있다 해도 그 인생은 황량하고 공허한 것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p.85)



안테르센의 <번거벗은 임금님>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래서 유머와 아이러니 수준으로 동화를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츠오는 이렇게 의미의 속살을 드러내준다. “우리는 어린이와 같은 근원적인 단순함과 솔직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번거벗은 모습 그대로의 인간, 즉 선과 악,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육체와 정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완전히 있는 그대로의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p.128)

미하엘 엔데의 <모모>는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수수께끼 형식으로 풀어간다. 시간은 느끼고 있을 때는 알 듯 하지만, 그에 관해 질문하게 되면 침묵할 수밖에 없게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우리가 획득해서 달성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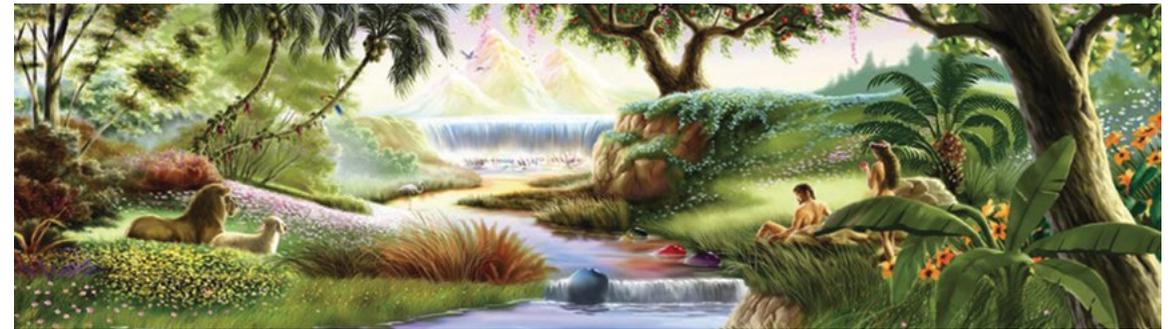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러한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주인인 살아 있는 신이 우리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한정된 시간 사이에 생명을 부여해준 것, 그 신이 허무의 위험 속에서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바로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p.173)

그림 형제의 <대부가 된 죽음의 신>은 삶과 죽음 사이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죽음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에서, 메멘토 도미니(K.바르트), ‘주님을 기억하라’로 나아갈 때 가능해진다고 말한다(p.220).

IV. 동화와 신앙 세계

동화 해석을 통해 미츠오는 동화에서 인생의 의미, 인간의 자아 실현, 자연과 세계 이해 방식, 절대적 가치와의 만남, 한계상황(K.야스퍼스)에서 있는 인간 이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있는 인간 등을 관찰해 내고, 궁극적으로 절대자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안내한다. 동화는 어원적으로도 “



기쁜 소식, 복음을 알리는 소식”(p.237)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동화 해석을 통해 “신앙 세계의 비유로서 독해하는 것, 신앙심을 배양하기 위한 안내로서 배워 보는 것”은 가능하다(p.237) 동화가 신앙 생활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실행해 보인 신학자 중에 본회퍼가 있다. 그는 나치 시대에 정규 신학대가 폐쇄되자 설교자 학교를 세워 신학 교육에 힘썼는데, 그는 “신앙의 숨은 뜻, 신앙의 깊은 뜻을 전달하는 설교에 걸맞은 표현 형식 내지 언어 형식을 탐구하다가, 마침내 일상성을 초월한 신비를 이야기하는 동화의 언어를 발견”하였다(p.239).

V. 동화를 다시 돌아보라

동화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신앙적인 면이 적지 않다.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보면 비판할 요소가 종종 보인다. 인물이 비상식적인 경우도 있고, 내용 전개가 비약적이며, 갈등 해결 방식도 신비적, 오컬트적이거나 무신론, 범신론적인 영향도 받고 있다. 때로는 기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다. 동화이지만 어린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잔혹함도 스며있는 이야기도 있다. “신학적으로 동화는 현세주의적이고 일차원적이며 반종말론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p.242). 하지만 이런 뒷면이 동화의 전부는 아니다. 미츠오의 연구는 동화의 밝은 면을 더욱 빛나게 한다.

동화를 읽다보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요소를 만나게 된다. 예를 들면 길 위의 여행자, 여행을 떠나는 이들, 이들은 인생이 “본질적인 것, 진실한 것”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자로서 인간을 비유한다. 나아가 동화 대부분은 “기본적인 신뢰”를 기본 골격으로 구성되어있다. 위험스런 상황, 어두운 세계 등이 등장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구성은 질서와 조화로 이루어진 세계를 기초로 한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은연 중에 “신뢰하라, 희망을 잃지 마라”(p.242)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 안에 “존재와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 즉 희망을 전해준다. 동화는 그런 뜻에서 “근원적인 신뢰의 세계” 위에 존재하며, “동화에서 우리가 신뢰를 배우는 것은 동화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암호와 접촉하는 것”이다(p.245).

이 책의 결론같은 부분은 이렇게 끝맺는다. “동화는 인간이 그 삶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즉 자기 자신이 창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동화는 은총과 구원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인간이 은총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점을 환기해 준다는 의미에서 신앙을 위한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p.249)... 동화는 우리가 선한 분에게 신비롭게 보호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죠”(p.256) 있다. ☺

다시 뻔뻔해지는 새해

다시 뻔뻔해져야겠습니다. 저는 지난해만 되돌아보아도 후안무치(厚顔無恥)했던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새해인사를 건넬 엄치가 없습니다. 시간 약속을 반복해서 어긴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절반도 이행하지 못하였고 거친 운전습관도 여전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에 걸맞게 성품이 다듬어지기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의나 자포자기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패배주의나 염세주의에 함몰될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새해에도 다시한번 일어서 보자고 '뻔뻔스럽게' 재도전해 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과 부조리에는 '뻔뻔스럽게' 타협을 반복하면서 소망을 다시 새롭게 다져 보려는 일에는 뻔뻔스럽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항변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자신의 거듭남을 입증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알아차리고서는 "심히 통곡"하였는데, 그 후에도 또다시 주님의 마음을 떠났습니다. 끌고다 언덕에서 주님을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른 사도들을 주동했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무슨 민낯으로 사도들을 대표해서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을 설교하였는지 참으로 뻔뻔스럽지(?) 않습니다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뻔뻔스러움'을 용납하셨기에 목숨을 건 사도들의 사역도, 먼 나라 이웃나라 복음 전파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뻔뻔스럽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행정부 견제와 입법 활동도 원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타인에게나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뻔뻔스러움은 당연히 배척해야 되겠지만 공익을 위한 천연덕스러움은 애교스럽게 받아줄 만도 합니다. 이를테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9급 말단 공무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법률은 제정하였으면서도 월급 금액이 10배 이상이 되는 자신들의 세비(연봉)는 공개하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반수당을 슬그머니 3%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격지심으로 민생

현안들을 밀쳐 두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뻔뻔스러운(?) 기질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공익의 현안들을 검토하도록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도 새해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뻔뻔스러워지면 어떨까요? 우리의 사역과 섬김을 지속시키려면 지난해의 불찰에 얽매어 있기 보다는 뻔뻔스럽게(!) 다시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에도 국내외 사회적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사건들이 느닷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기대 이상의 기쁨의 소식들로 즐거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새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시간의 결정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앞으로 몇 번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봄바람과 여름 계곡의 물과 가을 단풍 잎과 겨울 햇살을 만끽하며 이 땅에서 청지기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표와 실천계획이 있어서 새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주어져서 우리의 목표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주시하시듯이 우리도 동역회의 할 일보다 우리 동역자들에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함께 할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들"입니다(롬12:15). 새해가 우리를 끌고 가기 전에 우리가 새해를 감사하게 맞으며 뻔뻔스럽게 즐긴다면 올해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시간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올해에도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세상읽기'를 하고 '세상쓰기'를 하고 '세상 넘어서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에서는 구별해 내기 어렵다.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새신자반>, 301쪽)라고 기술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임을 함께 드러내고 싶습니다. ☺



김태환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명지대와 하와이 열방대학의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C-LAMP)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정기총회 공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기총회 공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는 2015년도 정기총회를 실시합니다.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신년의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시어 동역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6년 1월 25일(월), 저녁 6시
- **장소** 왕십리교회 (서울시 성동구 난계로 160)
- **일정** 1부. 저녁만찬
2부. 신년감사예배
3부. 정기총회

[공동주최] 기독교세계관학교 “세상 바로 보기”

한국 라브리 공동체와 함께 기독교세계관 강좌를 준비합니다. 3일간 진행되는 기독교세계관 학교에서 만나 보아요.

- **주제**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 바로 보기
- **일시** 2016년 1월 28일(목)~30일(토), 3일간(숙박제외)
-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3별관 (2,6호선 합정역 인근, 합정동 371-5)



- **강사** 성인경, 황성주, 김승욱, 우종학 외
- **수강료** 7만원(전일참석시, 중식제공), 2만원(저녁만 참석, 일부참석은 문의)
- **문의** 동역회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 라브리 홈페이지 <http://www.labri.kr/> (카카오톡 ID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신규 모임] 월드뷰리더(Reader) 공고

함께 모여 <월드뷰>를 읽는 리더Reader 모임을 시작합니다. 혼자만 읽기 아쉬웠던 분들, 혹은 나누고 싶었지만 나눌 이가 없던 분들 함께 모입니다. 신년에 그 첫모임을 사당역 와우카페에서 시작합니다.

- **일시** 2016년 1월 7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와우카페 (2,4호선 사당역 인근)
- **문의**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담당 : 김고운 간사)

[대학원생 모임]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공고

젊은 신진학자들을 위한 자리,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이 이번 달에는 1월 15일(금)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MCA 종강]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12기가 1월 30일 종강예배로 졸업합니다. 이어 진행되는 13기 모집은 3월 중에 있습니다.

- **문의** 홍정석 간사 (02-745-7237)

[학술지] <신앙과 학문> 21권 1호 투고 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신앙과 학문>이 학문에 관심있는 분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홈페이지에 직접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 21권 1호 발행일 3월 31일
- 21권 2호 발행일 6월 30일
- 21권 3호 발행일 9월 30일
- 21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문의** 02-3272-4967 (학회)

[다운로드] 월드뷰, 신앙과 학문, 각종 세미나나 포럼 자료들을 보고 싶으시다고요?

지금까지 발행한 <월드뷰>, 학술지 <신앙과 학문>을 보고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가입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모바일월드뷰를 통해서도 핸드폰이나 인터넷, 무엇이든 손쉽게 접하실 수 있어요. 멀리서 접하기 어려웠던 세계관 강좌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문의**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02-754-8004

우리 페친! 카톡친구해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검색하세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친구찾기' → 검색 : (ID)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친구추가, 채팅창 이용
- **페이스북**
'친구찾기' → 검색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좋아요' 누르기, 팔로우!

[신년인사] 새해,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길!

한 해, 함께해 주신 동역자님! 새해,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2	
3	
4	
5	
6	
7	월드뷰 리더 모임
8	CMCA 세계관캠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한동대 주관) 동성훈 포럼
19	
20	
21	
22	
23	
24	
25	2016년 1차 이사회, 2016년 총회
26	
27	
28	2월호 발행
29	[라브리 공동주최] 기독교세계관학교 (장소 :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30	CMCA 졸업
31	



원수사랑

어떤 목사님이 원수사랑에 대해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수가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맨 앞자리에 앉은 90세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목사님은 너무 감격해서

“참 훌륭합니다. 어떻게 원수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까?” 하고 칭찬했다.

할머니, “그 사람들은 다 죽어 버렸거든요!” 